

제4회 한·일 진로교육 포럼
第4回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 보장에 관한 한·일 비교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
進路保障に関する日韓比較

일시
日時

2021년 9월 25일 (토) 14:00~17:00
2021年 9月 25日 (土) 14:00~17:00

형식
形式

Web세미나(온라인)
Web 会議(オンライン)

주최
主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JSSCE 일본진로교육학회
NYPI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JSSCE 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

공동주최
共催

ARACD 아시아진로개발학회, ARACD Korea 미래진로개발학회
ARACD アジア地区キャリア発達学会, ARACD Korea 未来進路開発学会

제4회 한·일 진로교육 포럼
第4回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 보장에 관한 한·일 비교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
進路保障に関する日韓比較

일시 日時

2021년 9월 25일(토) 14 : 00 ~ 17 : 00

2021年 9月 25日(土) 14 : 00 ~ 17 : 00

형식 形式

Web 세미나(온라인)

Web 会議 (オンライン)

주최 主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일본진로교육학회(JSSCE),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NYPI), 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JSSCE)

공동주최 共催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 미래진로개발학회(ARACD Korea)
アジア地区キャリア発達学会(ARACD)、未来進路開発学会(ARACD Korea)

프로그램 세부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개회	14:00-14:15	인사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현철 ,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 미야코 노리히로) 사회 : 칸사이여자단기대학 교수 니시 미에
발표	14:15-14:25	1분과 한국 COVID-19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의 경험 김승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5-14:35	발표 일본 진로교육과 진로보장 미무라 타카오 (와세다대학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14:35-14:45	2분과 한국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지원 사례 최연수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Hub 관장)
	14:45-14:55	발표 일본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지원 이케다 타다시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 고문위원)
	14:55-15:05	3분과 한국 COVID-19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시도 이진명 (정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15:05-15:15	발표 일본 사회적고립 청소년·청년의 실태와 코로나사태에서의 상담실천 타니구치 히토시 (비영리활동법인 스튜던트·서포트·페이스 대표이사)
	15:15-15:20	휴 식
	15:20-16:10	1분과 진행 오카베 아츠시 (삿포로오타니대학 교수)/ 최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분과 진행 타나가 미츠하루 (문부과학성 전문위원)/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분과 진행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미야코 노리히로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
분과별 토론	16:10-16:20	휴 식
	16:20-17:00	종합토론

プログラム

区分	時間	内容
	13:30-14:00	受付開始
	14:00-14:15	開会式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長 金鉉哲, 国立教育政策研究所総括研究官 宮古紀宏) 司会 : 関西女子短期大学教授 西美江
報告	14:15-14:25	1分科発表 Ⅰ 韓国Ⅰ COVID-19時代の進路教育, 韓国の経験 金承保 (韓国職業能力研究院 前任研究委員)
	14:25-14:35	Ⅰ 日本Ⅰ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 三村隆男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
	14:35-14:45	2分科発表 Ⅰ 韓国Ⅰ 学校外の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キャリア教育支援事例 崔連洙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梧琴Hub館長)
	14:45-14:55	Ⅰ 日本Ⅰ 不登校児童生徒への「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支援 池田忠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参与)
	14:55-15:05	3分科発表 Ⅰ 韓国Ⅰ COVID-19時代における進路進学相談の変化の試み 李珍明 (貞媛女子中学校 進路進学相談部長)
	15:05-15:15	Ⅰ 日本Ⅰ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 谷口仁史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ステ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 代表理事)
	15:15-15:20	休憩
分科別 討論		1分科 司会 岡部敦 (札幌大谷大学准教授) / 催丞馥 (ソウル特別市教育庁企画調整室長)
	15:20-16:10	2分科 司会 田中光晴 (文部科学省・専門職) / 金貞熟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研究委員)
		3分科 司会 金鉉哲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長) / 宮古紀宏 (国立教育政策研究所総括研究官)
	16:10-16:20	休憩
	16:20-17:00	総会

목 차

(Korea Ver.)

제 1 분과

| 한국 | COVID-19 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의 경험 1

김승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본 | 진로교육과 진로보장 9

미무라 타카오 (와세다대학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제 2 분과

| 한국 |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지원 사례 :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사례중심으로 19

최연수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 Hub 관장)

| 일본 |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지원 : 교토시교육상담 종합센터(교토시 교육위원회)의 지원 및 활동 27

이케다 타다시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 고문위원)

제 3 분과

| 한국 | COVID-19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시도 : 학생들의 마음 트임 첫 걸음 35

이진명 (정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 일본 | 사회적고립 청소년·청년의 실태와 코로나사태에서의 상담실천 : 코로나시대 부등교·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아웃리치 지원 47

타니구치 히토시 (비영리활동법인 스튜던트·서포트·페이스 대표이사)

目次

(Japanese Ver.)

第1分科

- | 韓国 | COVID-19 時代の進路教育, 韓国の経験.....59
金承保 (韓国職業能力研究院 前任研究委員)
- | 日本 |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67
三村隆男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

第2分科

- | 韓国 | 学校外の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キャリア教育支援事例：松坡区における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事例を中心に77
崔連洙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梧琴 Hub 館長)
- | 日本 | 不登校児童生徒への「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支援：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京都市教育委員会)における支援・取組85
池田忠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参与)

第3分科

- | 韓国 | COVID-19 時代における進路進学相談の変化の試み：生徒の閉塞感の解消、第一歩.....93
李珍明 (貞媛女子中学校 進路進学相談部長)
- | 日本 |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コロナ禍における不登校・引きこもりへのアウトリーチ支援 103
谷口仁史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ステ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代表理事)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COVID-19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의 경험

김 승 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VID-19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의 경험

김 승 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VID-19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원격 연결'에 의한 수업 방식을 모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동시에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진로교육에도 여러 가지 차원의 도전과 자극을 던졌다.

2020년 1월 초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전국의 초중고 개학은 1차(2월 23일), 2차(3월 2일), 3차(3월 17일), 4차(3월 31일)에 걸친 총 4차례의 개학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4월 9일 고3 및 중3의 온라인 개학을 필두로 4월 16일의 고1·2 및 중1·2, 초4·5·6 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거쳐 4월 20일 초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학교에서의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은 국가수준의 정규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시행하게 된 최초의 시도가 되었다(남궁지영, 2020).

이미 같은 사무실, 같은 교실 내에서조차 특이나 문자 등 SNS로 소통하는 양이 대면과 접촉에 의한 소통의 양을 압도하는 이른바 'Phono Sapience'의 시대이다. IT 산업 역시 한국경제의 주력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정작 COVID-19 사태로 인한 전면 온라인 개학은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IT 및 디지털 기반 학습 인프라가 얼마나 부실하고 구멍이 많은 상태 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생활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는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 그리고 가정은 학생의 원격수업 접속 및 생활지도를 위해 각기 다른 차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김승보 외, 2021).

첫째, 인터넷과 기기/소통 도구 등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무선인터넷,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보급 부족이, 그리고 가정에서는 노트북 신규 구매, 프린터 구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온라인 개학 초기에 이슈가 되었다.

둘째, 줄이나 e학습터 등 원격 기기에 숙달된 교사가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학교별로 5~10%에 불과하여, 이들 숙달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원격수업을 세팅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학부모들은 간단한 기기 조작을 문의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우왕좌왕하였다.

셋째,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학력 저하 우려는 곧바로 '사교육'에 대한 행렬로 이어져, 가정의 경제 수준이 학력 격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교육을 더욱 불신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들에게는 늦은 취침과 늦잠, 체력의 저하, 비만과 나태함, 사회성 저하, 디지털 기기 사용량 증가, 잦은 지각 및 결석·조퇴 증가 등 부정적인 방향의 생활습관이 조성되었다.

다섯째, COVID-19 초기의 원격수업 방식은

EBS 방송 등 동영상 강의 수강 위주였고, 점차 쌍방향(live streaming) 수업이 도입되었으나 집중의 어려움, 출결 확인 및 학생 통제의 어려움, 수업 피로도 심화, 수업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진로교육정책과가 탄생하고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 2011년을 한국에서 본격적인 진로교육 정책이 시행된 기점으로 삼는다면, 진로교육의 역사는 겨우 10년에 불과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학교교육에서의 각종 이슈나 문제, 우여곡절과 혼란은 고스란히 혹은 그 이상으로 진로교육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온라인 개학 초기인 2020년 1학기에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 관련 활동이나 수업을 아예 엄두 내지도 못하거나 2학기로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창체¹⁾ 등 비교과 온라인 진로수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의 COVID-19 기간 전후(2019년 7월 / 2020년 10월)의 비교 결과도 이러한 상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교육 참여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온라인 기반의 진로수업이나 심리검사에 비해 특히 체험 활동이나 진로상담, 동아리활동 등 오프라인 기반의 진로교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진로교육 연수나 특강 등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학교진로교육 특성상, 진로지도의 한 주체로서 혹은 진로활동의 조력자로서 큰 역할이 있는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경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의 이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와 준비도'의 네 영역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수준에서는 당연하게도 모든 학교급에서 큰 폭의 저하가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COVID-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학교 진로교육이 일반적인 교과활동과는 다른 몇 가지 장치에 기인한다.

첫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들 센터가 지역별로 도입한 e-개설, 원격 진로체험 및 멘토링 제공, 온라인 진로박람회 개최, 체험 톨킷 제공 등 각종 원격 및 온-오프 블렌디드 진로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진로교육의 공백을 일정 정도 보완하면서 동시에 진로교육의 향후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온라인 시스템의 역할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진로정보망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운영), 진로체험지원 시스템 '꿈길'(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온라인 진로 멘토링 / 창업체험 시스템 'YEEP'(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운영) 등의 이용률과 활용 빈도가 COVID-19 상황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이버진로교육 시스템인 '꿈날개' 등 각 시도교육청의 각종 온라인 진로지원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¹⁾ 창체(創體)란, 창의적 체험활동(創意的體驗活動)을 말하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의미함. 일본의 경우 '종합적 학습시간(総合的な学習の時間)'과 유사함.

셋째, 개별 학교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다. 학교별로는 비대면 도구를 활용하여 진로수업의 범위와 폭을 매우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일부이기는 하나 시도되고 있다. 대면 수업에서 시도하기 힘든 동네 어른 인터뷰를 비대면으로 공유하거나 학생들의 자기주도 활동을 교사가 비대면으로 지도하는 일 등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세상과 교실을 잇고 학생 스스로의 세상 탐색을 촉진하는 진로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동시에 함께 겪은 '원격 연결'에 의한 교육 활동은 한국의 청소년 일반교육 및 진로교육에 있어서 획기적 경험이다. 그리고 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원격교육이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도 확실해지고 있다. 이제 진로교육도 에듀테크와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커리큘럼과 학습 콘텐츠를 적극 모색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

참고문헌

김승보, 한애리, 최영섭, 엄미정 (2021). 「비대면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궁지영 (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 교육정책포럼, 328호 (2020년 10월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2. 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COVID-19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의 경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승보

정부의 전염병 대응과 원격수업 도입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 ✓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 ✓ 4차에 걸친 **개학 연기**
1차(2월 23일) → 2차(3월 2일) → 3차(3월 17일) → 4차(3월 31일)
- ✓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
✓ 4월 9일(고3, 중3) → 4월 16일(고1·2, 중1·2, 초4·5·6) → 4월 20일(초1·2·3)

전면적인 원격수업의 도입

- ✓ **국가수준 정규교육과정**에 '원격 수업'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
- ✓ 학교교육의 ICT 및 디지털 기반 **학습 인프라 부실함**을 표출
- ✓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물론, 원격수업의 접속을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는 **가정에도 추가적인 부담 발생**

원격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하드웨어 구비

- ✓학교: 무선인터넷,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인프라 부족
- ✓가정: 노트북 신규 구매, 프린터 구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2. 원격기기의 속달

- ✓원격기기에 속달된 교사에게 업무 쏠림과 가중
- ✓가정 내 원격기기 수업을 위한 문의 창구 부재

3. 사교육 수요 증가

- ✓학습효과 및 학력 저하 우려로 사교육 수요 증가
- ✓이로 인해 학력에 대한 가정의 경제력 격차 반영이 강화

4. 부정적 생활 태도

- ✓늦은 취침·늦잠, 체력저하, 비만·나태함, 사회성 저하, 잦은 지각·결석 등

5. 원격수업의 한계

- ✓기술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업집중과 출결 확인의 어려움, 피로도 심화, 수업의 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

학교 진로교육에의 영향

학교교육의 문제가 진로교육에도 반영

- ✓온라인 개학 초기: 대부분 학교가 진로 관련 활동·수업 취소 및 연기
- ✓창의체험활동 등 비교과 온라인 진로수업의 경우 더욱 심각

1. 진로교육의 전반적 감소

- ✓주요교과와 우선 순위에서 밀린 '진로교육'은 전반적으로 감소
- ✓온라인 기반의 진로수업, 심리검사에 비해 체험활동, 진로상담, 동아리활동 등 오프라인 기반 진로교육이 큰 폭으로 감소

2. 학부모 참여 기회 차단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연수나 특강 등의 참여율 급감
- ✓진로지도의 한 주체이자 주요 조력자로서 학부모 역할에 장벽 발생

3.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 하락

-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의 네 영역으로 평가) 점수의 큰 폭 하락

학교 진로교육에의 영향

[중학교 진로활동 학생 참여율]



[학부모의 진로연수·특강 참여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진로교육의 가능성과 새로운 모색

1.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 학교 밖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
- ✓ e-studio, 원격 진로체험·멘토링, 온라인 진로박람회, 체험 톨킷 등 개발·운영

2. 전국 단위의 각종 온라인 지원 시스템

- ✓ 교육부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연구원), '꿈길'(대한상공회의소), 'YEEP'(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이용률 및 활용 빈도의 급격한 증가

3. 단위학교의 진로전담교사

- ✓ 진로수업의 범위와 폭 확대, 학생 주도적 탐색 활동의 비대면 지도 등 **비대면 도구**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새로운 탐색
- ✓ 학생 주도의 탐색 촉진 등 진로교육의 **디지털적 특성** 활용

- 전염병으로 인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원격/비대면 교육의 국면** 진입
- 디지털 기술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진로교육 커리큘럼과 학습콘텐츠** 모색 필요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진로교육과 진로보장

미무라 타카오

(와세다대학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진로교육과 진로보장

미무라 다카오

(와세다대학교 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1. 진로 보장 관련 경위

1) 진로보장의 이념

일본에는 진로보장이라는 말이 있다. 한일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 진로보장의 이념은 아동 권리 협약 제28조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문 중의 '정보와 지도'가 진로 실현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 체험 및 상담, 나아가 선택이나 선발 등의 기회를 모든 아동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 상태라고 본다면 진로 보장 자체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2) 진로보장을 위한 하나의 싸움

일본의 고교 진학율은 1955년 51.5%, 1965년 70.7%, 1975년 91.9%로 급상승한 반면, 고졸 취업률은 1955년 47.6%, 1965년 60.4%, 1975년 44.6%의 추세를 보이며 1960년대 초반에 절정을 맞았다. 당시 피차별 부락(동화 대상 지구) 출신의 고졸 취업 희망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 '1965년에는 제1회 진로보장협의회를

열어 취업 차별 철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힘쓸 것을 건의'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60년대에 동화 지구 고졸자의 취업 차별 해결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진로보장은 동화 교육의 집합체'로 여겨졌다. 고졸 학력으로 취업할 때 기업 측에서 준비한 지원서(이력서) 사용을 중단하고, 1973년에 노동성, 문부성, 고등학교교장회의 3자가 작성한 '전국 통일 지원용지'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취업 차별을 조장하는 항목(예: 본적지나 부모의 직업)을 고등학생이 기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후에도 '전국 통일 지원용지'의 개정이 이어지면서 진로보장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었다.

3) 고교 중퇴 및 빈곤에 대한 진로보장 시책

현재 고교 중퇴자는 42,882명(1.3%)이다(문부과학성, 2020)². 2017년도부터 고교 중퇴자가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상담 및 학습 지원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배움을 통한 Step-Up 지원 촉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은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의 교육위원회 등 지방 공공단체이지만, 시작된 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 6, 5, 3개단체로, 참여가 저조하다.

¹ '취직 차별 철폐와 진로보장의 과제 도교 부락 해방 연구소 부이사장 마츠우라 토시사다 씨에게 듣다' 부락 해방 동맹 도쿄도 연합회 URL: <http://blltokyo.net/syuusyoku/matuura2008I.pdf>(2021년 8월 23일 열람).

² 문부과학성(2020) 2019년도 '아동 학생의 문제 행동 및 등교거부 등 학생 지도상 제과제에 관한 조사' (확정 수치).

후생노동성의 '2019년 국민생활 기초 조사'에 따르면, 아동 빈곤율은 13.5%(2018년소득 기준)로, 일본 전국의 아이들 약 7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6월 '아동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채택되어 '아동 한 명 한 명이 꿈과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하여 아동 권리 협약 정신에 입각해 아동 빈곤 대책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빈곤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아동 빈곤 대책에 관한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나 대강이 철저하게 실행되려면 진로보장의 이념을 다시 한번 학교 교육에 묻고, 그 의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4) 코로나19 데이터 '전국 학력 및 학습상황 조사(전국 학력 시험)'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임시 휴교를 단행했고, 이러한 상황은 거의 5월말까지 지속되었다.

문부과학성은 2021년 8월 31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약 194만 명을 대상으로 국어와 산수/수학 2개 과목에 대해 2021년 5월에 실시한 '전국 학력 및 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시험)'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0년 4월 이후의 휴교 기간이 성적(평균 정답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휴교 기간을 10일 단위로 나누어 각 기간별 성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국어는 휴교 기간이 가장 짧았던 '10일 미만' 학교의 평균 정답률이 65.3%로, 가장 길었던 '90일 이상'의 64.3%보다 높았다. 중학교 수학은 '10일 미만'이 54.4%로, '90일 이상'의 56.7%보다 더 낮았다. 문부과학성은 '휴교 기간과 성적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관 관계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5) 도쿄도 오타구(大田区)의 조사

2020년 9월~10월, 도쿄도 오타구가 실시한 구립 초등학교 5학년생 및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인 '오타구 청소년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2021) (이하, '보고서')가 있다.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유효 응답률은 학부모 84.4%, 초등학교 5학년생 86.0%였다. '보고서'에서는 '가정', '아동·청소년', '가구 소득'의 3가지 관점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정의했다. 그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3월~5월까지 학교가 휴교했다. 이 영향으로 본인의 자녀 학력이 저하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을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생계비곤란층 37.2%, 생계곤란층 55.2%를 기록했다.

문부과학성 전국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기간과 성적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도쿄도의 한 특별구에서는 생활의 어려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성적 저하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이 나타났다. 실증 데이터는 진로보장 실태를 명확히 밝히는 형태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2. GIGA 스쿨 구상 실현을 향하여

OECD조사 '학교 밖에서의 평일 디지털 기기 이용 상황(학습) 국제 비교'(2018)에서는 '학교 공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본다'를 비롯한 12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일본이 가입국가 중 최하위였다.

문부과학성은 이듬해인 2019년 12월에 <1인 1대 단말기는 요즘 시대 배움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GIGA 스쿨 구상에 착수했다. 휴교 종료 직후인 2020년 6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응한 지속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가인드라인'을 내놓고, '8월까지'는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등 최종 학년의 아동 학생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ICT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가정에 ICT가 정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문부과학성은 2021년 3월에 'GIGA 스쿨구상'의 실현을 향한 ICT 환경 정비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문부과학성)를 발표했다. 이 안의 '단말기 조달에 관한 상황'을 보면, 2020년도 이내에 모든 지자체 중 97.6%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거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서 1인 1대 정보 단말기 사용 가능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교내 통신 네트워크 환경 정비'의 경우는 4월까지 97.9%가 공용 개시에 들어간다. 코로나 19로 GIGA 스쿨 구상이 단숨에 실현을 향해 가속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적 내실화와 질적 배려

다양한 아이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개인 맞춤형 자질과 능력을 한층 더 확실하게 키워낼 수 있는 교육 ICT 환경을 실현하려는 활동으로 시작된 GIGA 스쿨 구상은 ICT 환경의 양적 내실화를 통한 학습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아동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커리어 형성과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배움이 실현되어야만 참된 개인 맞춤형이지 않겠는가. 물론 양적 내실화가 바탕을 이루겠지만 그 안에서의 질적 배려를 추구하는 진로보장의 관점은 어떠한 시대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로교육과 진로보장

와세다대학교 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 미무라 타카오

진로 교육과 진로 보장

아동 권리 협약

제28조 1-(d) (아동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진로 실현을 위한 학습과 훈련, 체험 및 상담, 나아가 선택과 선발 등의 기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 모든 아동 학생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상태.

진로 보장

1973년 '통일 지원서' 작성

...현재 기업들이 자체 제작해 사용하는 지원서류에는 적성 및 능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판단 자료로서 채용 여부의 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한 부모 또는 부모를 여윈 자,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 및 일반학교와 통신학교 재학생 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발견되었고, 특히 '동화 대책 사업' 대상 주민에 대한 취업 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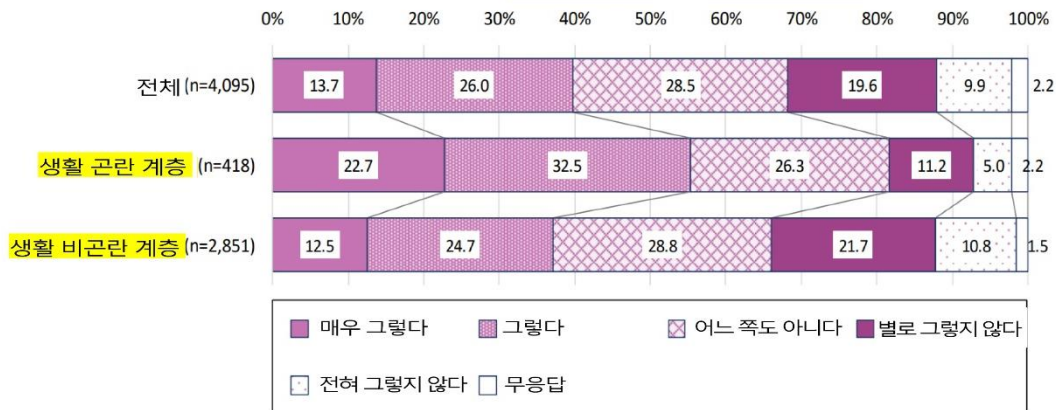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신규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전형을 위한 지원 서류에 대하여' 1973년 3월 1일)

• 노동성, 문부성, 고등학교교장회 3자가 '전국 고등학교 통일 지원서 제도' 발족

“오타구(大田区) 어린이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21) 발췌

설문24A(신설) 오타구에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 휴교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분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SA)

그림 1-2-6-8 자녀의 학력(學力)이 떨어졌음



GIGA 스쿨 구성 실현의 시대로

~ 1인 1대 단말기는 요즘 시대 배움의 ‘스탠다드’ ~
다양한 아이들 누구 하나 빠짐 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개인 맞춤형 자질과 능력을 한층 더 확실하게 키워낼 수 있는 교육 ICT 환경 실현의 시대로

○코로나로 인한 ICT 활용 학습 방안의 급속 진전과 ICT환경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공교육에서 바로잡기 위하여 2020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구상이 가속화 되었음.

○새로운 목적 : ‘1인 1대 단말기’의 조기 실현, 가정에서도 연결 가능한 통신 환경 정비 등 ‘GIGA 스쿨 구상’의 HW/SW · 인재 통합형 정비 가속화로 재해와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임시 휴교 등의 긴급 사태에도 ICT 활용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배움을 보장해주는 환경을 조속히 실현함.

문부과학성. (2021). “아동 학생의 자살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제1회)”. 배포자료

2019년 및 2020년 아동 학생의 자살 원인 및 동기별 표 ~원인 및 동기 수 중 상위 10개 항목~

(명)

2018년 순위	소항목	2018년 인수	2020년 인수(순위)	대항목
1	학업 부진	43	52(2)	학교문제
2	기타 진로 관련 고민	41	55(1)	학교문제
3	부모와 자녀 관계 불화	30	42(3)	가정문제
4	가족의 훈육과 질타	26	26(6)	가정문제
5	질병 고민 및 영향(기타 정신 질환)	26	40(4)	건강문제
6	기타 학우와의 불화	24	26(7)	학교문제
7	입시 관련 고민	21	18(8)	학교문제
8	질병 고민 및 영향(우울증)	20	33(5)	건강문제
9	이성과의 이별	16	16(9)	남녀문제
10	기타 교제 관련 고민	13	5(17)	남녀문제

※아동 학생의 자살 원인 및 동기 2020년 10위 항목은 [기타 가족관계 불화](가정문제) 16명.
(2019년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불화]는 11위(11명))

※동일 순위의 항목이 많아 표에 모두 기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소항목에서는 [기타] 제외. ※복수 카운트 있음.

※자살의 상당 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이 있어 여러가지 요인이 얹혀서 발생

(출처) 후생노동성 [자살 통계: 각 연별 상황]을 기초로 문부과학성에서 작성 4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지원 사례

—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사례중심으로 —

최 연 수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Hub 관장)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지원사례

—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사례중심으로 —

최 연 수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Hub 관장)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체계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공교육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국 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송파구에도 매년 900여 명이 추정되고 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지원과와 시도 및 시·군·구 219개의 꿈드림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청소년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의 역할

여성가족부 학교 밖 지원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의 발굴·연계를 통한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다.

학업형 청소년에게는 동아리활동,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진로교육활동 및 직장체험(인턴십)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원, 청소년의 전문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 체험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나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상담 활동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별 맞춤형 체험활동, 무기력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바리스타, 제과 제빵, 악기 배워 공연하기, 도보여행을 통한 삶의 무기력과 고립 탈출, 단계에 맞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삶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역사회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와 연계

국내에는 수많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다양하게 설립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송파지역에도 10여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소규모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15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지역사회의 마을을 학교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규모의 학교의 단점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고 마을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비인가 대안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환경의 변화와 적응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보다는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공교육의 비대면 가정학습의 전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은둔하는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기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키트활용 체험

초기에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교육기자제와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해 혼란도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기본교과에 대한 학습모형과 체험학습은 송파미래교육센터에서 제공받아 다양한 체험키트를 활용한 동영상 보면서 제품을 조립하는 망원경 조립, 무드 등, 블루투스 스피커 조립 등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진로체험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유튜브를 활용하여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며 소규모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진로탐

색과 체험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직·간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3) 가정 방문 활동과 학생의 깊은 이해

비대면 온라인 가정학습을 진행하면서 과제물과 체험키트와 마스크를 가지고 교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에 주 1회씩 방문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도 신뢰감이 증진되었다.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 내에 분위기나 역동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학생의 미래와 진로지도에 대해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규모 대안학교의 특성이 코로나시대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의 실험

1) 후기청소년 창업 및 일자리 플랫폼의 실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졸검정고시를 마치고 나서 대학진학을 못하면 취업을 해야 한다. 아직 취업을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과 장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년창업 및 일자리 플랫폼이 갖추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2-3년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 창업과정, 일자리 체험, 각종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흥미와 적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 Hub 청년일자리 플랫폼

(1) YOUTH CEO과정

만19-24세 후기청소년1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마인드를 기르는 창업자 과정을 개설하여 창업정신과 창업진흥원에

도전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창업의 꿈을 키우게 된다.

(2) 실내건축 현장 매니저 양성과정

청년들의 전문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현장의 일자리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 인테리어회사와 한국실내건축아카데미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1기 14명을 양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코트라 무역 기반조성 디지털B2B사업

송파미래교육센터 공유오피스에서 고졸검정고시를 마친 후기청소년과 일반 청년 30명을 채용하여 디지털 기반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높은 단계의 디지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글로벌 외식사업 창업과정

2022년 1월 창업을 목표로 동남아요리와 한국요리를 접목한 창업을 위한 메뉴 개발과 팝업스토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추진 중이며, 국내에 국한하지 않는 글로벌 창업팀을 꾸려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백서」, 193-197

한빛 청소년재단 사랑의 배움터 사례 인용.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 송파미래교육센터 사례 인용.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의 진로교육지원 사례

- 송파구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사례중심으로 -

송파미래교육센터 오금Hub 관장 | 최연수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체계

현 황

▣ 발생인원

- 매년5만명, 2019년 24만명 추산

▣ 지원법률제정

- 2015년 학교 밖지원법 제정
- 여가부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신설
- 전국 시·군·구 219개 학교밖 지원센터 꿈드림설치

▣ 대상

- 만 19세 ~ 24세 학교밖청소년
- 초·중·고 자퇴 및 퇴학
- 3개월이상 결석 및 미취학
- 상급학교 미진학, 취학의무 유예
- 학업숙려제 대상(잠재적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19개소)

- 1:1개인상담
- 동기부여
- 진로탐색 및 설정
- 학업지도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학업복귀 및 대학진학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민관협업 지원



2. COVID-19로 인한 학교 밖 교육환경의 변화와 적응

-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 교육 병행
☞ 다양한 시행착오 경험과 상황에 맞는 대안과 점진적인 적응 중.

1 일시적 학교 밖 청소년 인원감소

- 공교육의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일시적감소, 가정에서 은둔청소년들의 증가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2 온/오프라인 수업병행

-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ZOOM활용수업을 병행.
- 초기에 준비부족으로 혼란가중, 점진적으로 적응 중

3 자원센터와 지역대안학교의 유기적 연계활동

- 미래교육센터와 연계 다양한 체험키트(망원경, 블루투스스피커, 무드등 등)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가정학습제공.
- 과제물, 체험키트, 생필품 등을 방문하여 전달 및 상담으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음.

4 YUTUBE를 활용한 진로교육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유튜버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 토론, 소그룹 현장 방문활동으로 흥미와 참여유도.



3. 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플랫폼의 필요성

- 고등검정고시를 마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과 취업의 선택의 기로에서 취업을 위한 역량과 준비 부족으로 진로장벽에 직면
☞ 후기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플랫폼의 필요성 제기

1 Youth C·E·O

- 대상 : 창업에 관심 있는 후기청소년(19-24세)
- 내용 :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특강 및 멘토링 진행(온/오프라인 병행)

2 코트라 무역플랫폼 B2B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 대상 : 송파구 관내 후기청소년 및 청년
- 내용 : 코트라 무역플랫폼 바이코리아 B2B 사업 데이터 정비 및 검수 진행
- 성과 : 1차 30명 채용 완료(2021. 4), 2차 24명 추가 채용예정(2021. 9) 개발자 역량 확보 위한 사업 고도화 중

3 실내건축 현장 매니저 양성교육

- 청년들에게 실내건축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 지속가능 한 전문 일자리창출, 전문인테리어 회사와 조인, 협동조합 설립과 1기 14명을 양성 중이며, 본 과정을 수료 후 맞춤형 채용을 보장.

4 한빛글로벌 동남아외식창업 준비

- 2020년 8월-현재. 동남아음식을 주제로 후기청소년들과 외식창업을 준비중.
- 미얀마 전통 쌀국수 레시피 개발 완료, 베트남 현지 전문음식점과 기술이전 논의 중 **(2022년 상반기 오픈예정)**





| 제1분과

제2분과

| 제3분과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지원

—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교토시 교육위원회)의 지원 및 활동 —

이케다 타다시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 고문위원)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지원

—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교토시 교육위원회)의 지원 및 활동 —

이케다 타다시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 고문위원)

1.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에 대하여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애칭: ‘청소년 파트너’)는 2003년 4월에 문을 연 종합적인 교육상담 기관이다. 청소년 파트너의 큰 특징은 청소년에 관한 지원과 상담 네트워크 센터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교육상담(카운슬링)’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부문을 집약하고, 등교 거부 청소년들의 활동의 장인 ‘교육지원센터(적응 지도 교실)’를 하나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상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나 다른 관계기관과의 연계 하에 청소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 상담적 관점에서의 지원이나 청소년의 규범 의식 및 도덕 의식, 자기 지도력을 기르는 학생 지도 기법을 융합하여 다면적으로 아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학생지도과’로, 등교 거부 청소년의 교육을 비롯하여 따돌림이나 문제행동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이 청소년들의 규범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관할하고 있다.

‘교육상담(카운슬링)’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담센터’로, 임상심리사 및 공인심리사, 교원 경험자 등 심리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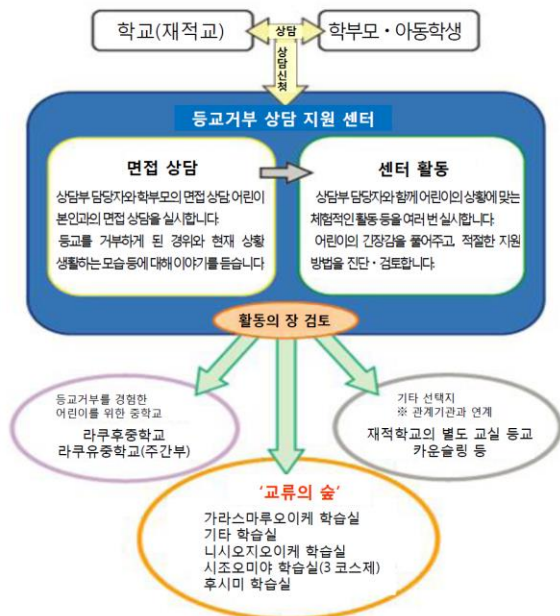
교 교직원 대상 연수회 개최, 컨설팅 실시, 상담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전문기관 연계, 학부모 자기계발 책자 제작 등 교육상담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적응 지도 교실) ‘교류의 숲’은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에서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높아 등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인간관계 등에 기인해 등교 거부가 장기화된 아이들이 배우고 활동하는 장이다. 아이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에 적을 둔 채 ‘교류의 숲’에 다니면서 소규모집단 체험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신뢰관계나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 새로운 생활에 대한 의욕이 고취된다. ‘교류의 숲’은 교토 시내에 5곳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학습실은 활동 내용을 특색 있게 꾸려 다양한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추어 등교 거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2007년 1월에 ‘등교거부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구체적으로는 ‘면접 상담’이나 ‘센터활동(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의 의향을 살핀 후, ‘교류의 숲’에 들어가거나(入級 : 입급), 부등교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인 교토시립 ‘라쿠후중학교’ 및 ‘라쿠유중학교’(부등교특례교)로 전 입학하기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법을 학교와 연계하여 추천하고 있다.

등교거부 상담 지원센터 활동의 흐름 [이미지]



2. 코로나 시국에서 다양한 리스크와

니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활동 및 지원

(1) SNS상담 창구 긴급 개설

2018년도부터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자 SNS를 활용한 상담 창구를 개설(8월중순~9월 말·1월초~1월말)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학교 임시 휴교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고민이나 불안감을 상담할 수 있도록 5월

7일부터 긴급 개설하여 9월 30일까지 계속 운영했다. 또한, 겨울방학 종료 전부터 약 한달 간(2021년 1월 3일~1월 31일) 개설·운영하였다.

(2) ‘마음과 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장기 휴교 종료 직후에는 생활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적 동요나 불안감이 생기기 쉬운 데다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마음과 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학부모 계발 자료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마음 돌보기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휴교로 평소와는 다른 일상 생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법이나 학부모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상담 창구 소개 등을 모은 종합자료집이다. 2020년 4월 30일 이후 모든 시립학교 및 청소년 파트너 홈페이지에 게재 중이다.

3. 등교거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2곳의 중학교

① 라쿠후중학교(2004년 10월 개교)

진로를 내다보고 기초적인 학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기본과목 등의 시수를 확보하는 한편,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

○ **창조공방**  음악, 미술, 기술/가정의 3과목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형태로 학습 가능한 테마를 설정해 ‘보고, 만지고, 듣는’ 등의 감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고, 자신의 감성을 살린 ‘그리고, 만들고, 노래하는’ 등의 자기 표현형 창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과학 시간**  사회와 과학을 통합해 각 교재의 관점을 이화(異化)시켜 과학적인 시각과 사고의 기초를 함양한다.

② 라쿠유중학교(2007년 4월 개교)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했던 분들 등에 대한 교육 보장을 실시하는 야간부(2부학제) 학생들과 등교거부를 경험한 주간부 학생들이 세대나 국적을 초월해 교류하고, 함께 배우는 전국의 하나뿐인 학교이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

○ **공동수업**  **주간부5·6교시, 야간부1·2교시**
(17:00~17:30, 17:30~18:15)에 주간부의 등교거부 학생들과 야간부의 2부 학급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동수업을 마련해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교류를 도모한다.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지원

-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교토시 교육위원회)의 지원 및 활동 -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 고문위원 | 이케다 타다시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의 지원 및 활동

1. 교토시교육상담종합센터에 대하여



교토시 교육위원회 지도부 학생지도과
상담센터・교류의 숲
망원경 박물관・교토시립 라쿠후중학교
교토시립 라쿠유중학교 ※등교거부 상담지원센터

2. 코로나 시국의 청소년 긴급 지원 · 활동에 대하여

(1) SNS 상담

상담 내용 :	친구 관계	(26 , 6 %)
	학업 · 진로	(22 , 0 %)
	심신의 건강 · 보건	(13 , 9 %)
	가정 환경	(6 , 6 %)
	코로나 관련 상담	(4 , 2 %)

(2) '마음과 몸에 대한 설문조사'

① 4개 요인, 총 26개 설문 항목

- ☞ ◆스트레스 정도 (17항목)
- ◆학교 생활의 즐거움 (3 항목)
- ◆휴교 기간 중 가족과의 관계 (3 항목)
- ◆휴교 기간 중의 규칙적인 생활 (3 항목)

② 4단계 척도로 응답

- ☞ 해당되지 않음 1점 · 별로 해당되지 않음 2점
- 약간 해당됨 3점 · 해당됨 4점

2. 코로나 시국의 청소년 긴급 지원 · 활동에 대하여

(2) '마음과 몸에 대한 설문조사'

③ 분석을 통한 고찰 I

- ☞ **학교 생활의 즐거움, 휴교 기간 중 가족과의 관계, 휴교 기간 중 규칙적인 생활의 3가지 요인은 상호 '정의 상관 관계'**

- ☞ 예를 들면,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는 어린이는 휴교 기간 중 가족과의 관계도 친밀한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 **스트레스 정도는 다른 2가지 요인 모두에 대해 '부의 상관 관계'**

- ☞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휴교 기간 중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한 어린이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2. 코로나 시국의 청소년 긴급 지원 · 활동에 대하여

(2) '마음과 몸에 대한 설문조사'

④ 분석을 통한 고찰

스트레스 억제도가 강한 영향 항목(설문 항목)

☞ 모든 학교 종류 · 연령대의 응답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학교를 쉬는 동안 규칙적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했다.

☞ 초등학생 응답

○학교를 쉬는 동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 중학생 응답

○학교를 쉬는 동안 가족과 있으면 안정적인
기분이 들었다.

☞ 고등학생 응답

○학교를 쉬는 동안 집에서 공부를 잘 했다.

3. 교토시립 라쿠후중학교 · 라쿠유중학교

① 라쿠후중학교 지역사회와의 합동운동회 · 등교 직후



② 라쿠유중학교 야간부(2부학급) 학생과의 공동 수업

교육과정(시간표)

시간	1교시 (10:00~10:45)	2교시 (10:45~11:30)	3교시 (11:30~12:15)	4교시 (12:15~13:00)	5교시 (13:00~13:45)	6교시 (13:45~14:30)	7교시 (14:30~15:15)	8교시 (15:15~16:00)	9교시 (16:00~16:45)
월	학	영	수	국	영	수	국	영	수
화	학	영	수	국	영	수	국	영	수
수	학	영	수	국	영	수	국	영	수
목	학	영	수	국	영	수	국	영	수
금	학	영	수	국	영	수	국	영	수

추가분
야간부
주 · 야간
교류 · 공동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COVID-19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시도

— 학생들의 마음트임 첫 걸음 —

이진명

(정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COVID-19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시도

— 학생들의 마음트임 첫 걸음 —

이 진 명

(정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1. 문제의식

1) 한국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 학교의 진로진학업무를 총괄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수업 등을 하는 교과교사라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개발역량 요소가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함양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진로교육의 중심내용이자 진로교육의 학습 성과라고 보고 있고 이를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교사라고 밝히고 있다(이종범 외 2010).

전문상담교사는 비교과 교사로서 '상담'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반면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는 교과목 교사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는 학교 행정가와 교사들에게 수업하는 교사라는 인식보다는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학교 급 별 진로지도와 목표는 궁극적 목적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학생 대상 진로지도의 목표로는 첫째, 의사결정 기술 습득 및 자기인식, 둘째, 교육과 진로 간의 관련성 인식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셋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한 직업세계 변화 인식, 넷째, 직무내용에 관한 학습을 통한 직업에 대한 인식 향상, 다섯째, 사회 내 직업의 역할 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직업태도 형성 등이라고 제시하였다(이종범 외 2010). 이와 같이 중학생 시기에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하게 되는데, 즉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와 직업 관련 직, 간접적 체험 등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습득 및 경험을 통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지연 외 2010). 이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진로진학상담이 COVID-19로 인해 내실화 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진로진학상담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코로나 19시대의 새로운 시도

COVID-19는 202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본교의 전교생은 1학년 110명, 2학년 131명, 3학년 132명 총 37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여자중학교이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COVID-19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진행하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많았다.

각 교과 수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진로와 직업」수업도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방식을 통하여 COVID-19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로진학상담은 COVID-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었고, 이런 이유로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나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느꼈다.

COVID-19시대에 맞는 진로진학상담의 가능성을 새로운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로 찾고자 하였다.

2.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첫 걸음

지난해는 4월부터 신학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원격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2학기에 접어들어서는 최소한 수업의 결손과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을 정상화하기에는 교육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다. 상담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상담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고, 그 결과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토대로 올해에는 1, 2,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다.

전 학년 학급별 원격 수업 기간을 활용하여 상담예약 시간을 각 학년 부장교사 및 교

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인 상담은 내담자(학생)의 희망,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COVID-19 상황으로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대되지만, 실상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을 기피하거나,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학력 격차에 관한 우려만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심각성을 느끼고 전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을 1회 이상 필수 사항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담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본교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대면 상담

전 학년 진로진학상담을 시작하기 전 각 학년 부장과 협의를 통해 어떤 학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협의한 후 실시하였다. 본교에서는 1학년 신입생의 경우 학생에 관한 정보가 없어 담임선생님이 상담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학년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 3학년, 그리고 2학년 순으로 전 학년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COVID-19 이전처럼 등교 수업이 실시되는 기간에 진로진학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다.

COVID-19로 무너져 가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등교 기간을 기다렸다가 진로진학상담을 신청하였다. 상담 실시 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리를 통해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2) 온라인 대면 상담

원격 수업 기간에 온라인(실시간 영상 활용)을 통해 대면상담을 진행하였다.

대면 상담은 등교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대면상담, 온라인 대면상담, 비대면 상담 중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후 학년 간 상담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였다.

1학기 1학년과 3학년의 상담은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이뤄지는 대면 상담은 아니지만, 온라인 영상(Zoom을 통한 실시간 상담)을 통해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적(COVID-19로부터 안전한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대면 상담보다 더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2학기에 시작한 2학년의 경우에는 대면상담을 온라인, 비대면 상담보다 더욱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3)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온라인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방법으로 전화 상담, 진로 진학 상담채널, 원격수업 플랫폼 채널, 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전 학년 1회 진로진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분류의 학생이었다. 가정 교육 환경이 불안하거나, 한부모가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이러한 분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로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Wee Class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상담 교사와의 상담과는

달리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상담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기보다는 학습이나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상담이라는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장점이 있어 전 학년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3. 학생들의 막힘 & 뚫림의 결과

교육부 지침에 의한 중학교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 의무이다. 본교는 1학기 95일, 2학기 95일로 총 수업 일수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2021학년도 본교의 1학기 학년 별 등교 일수는 1학년 55일(57.9%), 2학년 57일(60%), 3학년 58일(61.1%)이며, 나머지 수업 일수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교는 소규모 중학교로 1학기 시작부터 3분의 2가 등교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 일수는 총 95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교육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전교생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COVID-19로 막혀 있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뚫리기 시작했다.

COVID-19로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꿈도, 미래에 관한 어떤 생각도 막막하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감에서 조금씩 뚫림 현상이 나타났다. 꿈을 잇는 첫걸음으로 꿈틀꿈틀 살아나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변화되는 학부모님의 반응, 학급 담임으로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학급 아이들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친밀해지는 동료 교사와의 나눔 등을 경험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무척 힘들었지만, 29년째 교직생활을 한 중견교사로서 초임 교사 때 느꼈던 보람, 기쁨,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1) 대면 상담

등교 기간에 진로진학상담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마스크 너머로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COVID-19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의 제약으로부터 마음껏 쏟아내지 못하고 막혀 있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기주도학습, 학습 전략, 진로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것 등, 다양한 학습관련 등 자신들의 진학과 관련된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마구마구 쏟아 내기 시작했다. 이렇듯 대면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존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진로설계를 자발적,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려는 학생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뚝림의 시간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 온라인 대면 상담

등교 기간이 아닌 원격수업 기간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대면 상담이 진행되었다. 전학년 전교생을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원격수업 기간 중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 안전한 이유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였다.

COVID-19로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영상을 통한 대면이 더 익숙한 학생들은 온라인 대면 상담을 마치 실제 상담실에서 대면하는 상담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온라인 대면 상담 시에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 형태, 전략, 수행 결과물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게 되며, 실시간 영상을 통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족 구성원 간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영상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정 학습 환경(부모님, 형제, 자매 간의 대화 형식, 내용, 학습공간 공유 여부 등 수업이 아닌 상담 상황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됨), 학습 환경(학습에 도움을 주는

대상의 여부, 원격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기타 사항) 등 학생 이해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면 상담에서는 쉽게 파악되기 힘든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대면 상담

일반적인 상담이나 진로진학상담 모두 거부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특히 대면 상담에 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이한 상담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선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소수의 학생들은 진로진학상담채널, 원격수업 플랫폼을 통한 채팅(밴드 채팅)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비대면 상담 기능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기에 학생들은 대면 상담에 비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나 큰 부담감 없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비대면 상담의 장점으로는 대면 상담 시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든 내용(이성교제, 교우관계, 학교 따돌림, 우울한 감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학교장, 전문상담교사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과 대안을 찾는데 신속하게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상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상담을 부담스럽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진로와 진학에 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으로 인지하면서 가볍게 상담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학

생들의 막연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전문상담교사와 담임교사와의 협업, 나아가 학부모와의 상담 시에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4. 고찰

1) COVID-19 시대 온전한 집중

상담이란 내담자(학생)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인데,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 주기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더욱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당연시되고,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진로진학상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학생들의 행동과 말에 숨은 뜻을 발견하기 위한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과의 만남, 그리고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을 통한 학생과의 만남이 귀하게 이뤄진다.

COVID-19시대에 어떤 방법적 접근이 학생들에게 효과적 교육활동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마음을 읽어 주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운 학생들, 나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학생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진심 어린 관심의 온전한 집중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진로진학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우리 학생들을 성장하게 하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2) 학생들의 마음 트임을 위한 교사의 격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 행동이 병리적인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고

낙담(discouragement)한 결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문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격려(encouragement)를 통하여 낙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면 문제 행동도 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해중 외, 2020). 많은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학생의 행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거나, 그 원인을 찾아 따져 보려는 태도를 종종 취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곳이지만, 씩 없는 경쟁의 현장이 되어 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학교는 학생들을 쉽게 낙담하게 만들게 된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낙담하고 좌절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이 경쟁의 세계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도록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답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실수가 편안하게 허락되는 환경,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격려는 대상 간의 비교가 아닌 학생 자신이 지금까지 수행한 노력이나 개선된 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학생의 노력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다. 타인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노력한 것(결과에 관한 평가가 아님)에 대해 교사가 집중하고 알아차려 주고 언어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COVID-19로 닫히고, 막혀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막힘이 풀릴 것이다.

낙담한 아이들을 세워주는 교사의 격려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개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 연수교재.
- 이종범, 최동선, 고재성, 이혜숙 (2010).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임효신, 정철영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28(4), 107-137.
- 이지연, 정윤경, 이종범 (2010).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해중, 김정희, 김선희, 김선우, 조희진, 강지영, 오익수 (2020). 「격려하는 선생님」. 서울: 학지사

COVID-19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시도

- 학생들의 마음 트임, 첫 걸음 -

정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 이진명

1. 문제의식(코로나시대의 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진로와 직업 수업 (10시간이내)

진로·진학·상담 (8시간 이상)

학습자 중심 수업
(교과간 연계,
통합, 융합 등)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정보 탐색

미래 진로설계

II. 진로진학상담의 변화, 첫걸음

STEP1: 대면 상담

등교 수업 기간을 통한
대면 상담



진로 · 진학 탐색, 설계
적극적 상담

STEP2: 온라인 대면 상담

원격 수업 기간
사전 예약 상담



온라인 영상 대면 상담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자유

STEP3: 비 대면 상담

원격 수업 기간
(전화, 상담채널, 등)



전화 상담 외 채팅 상담
대면 상담의 부담감 감소

**전교생 1회 이상 진로 · 진학 상담 필수 안내 후 상담 진행
(누구나 프로젝트)**

III. 학생들의 막힘 & 돌림의 결과

중학교 총 수업일수 190일 이상: 1학기 95일, 2학기 95일
1학기 등교 수업: 1학년 55일(57.9%), 2학년 57일(60%), 3학년 58일(61.1%)



대면상담

자기주도 학습
전략 세우고, 학생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학습역량 강화 및
적극적 진로 설계
가능성을 발견함



온라인 대면상담

자기주도 학습에
방해되는 구체적
요인 탐색하고,
해결 방법 스스로
찾아 도전,
긍정적 경험의
기회가 제공됨



비 대면상담

자기 이해 및
존중, 자존감
회복, 스스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
긍정적 사고
시작하게 됨

IV. 고찰

학생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
위한 온전한

집중



IV. 고찰



학생들의 마음 트임!
낙담한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 성장하게 하는 힘

격려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사회적고립 청소년·청년의 실태와 코로나사태에서의 상담실천

— 코로나시대 부등교·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아웃리치 지원 —

타니구치 히토시

(비영리활동법인 스튜던트·서포트·페이스 대표이사)

사회적고립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와 코로나사태에서의 상담실천

— 코로나시대 부등교·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아웃리치 지원 —

타니구치 히토시

(비영리법인 스튜던트 서포트 페이스 대표이사)

1. 도도부현(광역지자체)단위로는 일본 최초로 설치된 ‘사가현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

2010년 4월 6일, 사가현은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참고)’ 제19조제1항에 근거해 도도부현(광역지자체)단위로는 일본 최초로 ‘사가현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사가현 아동미래과)’를 발족했다. 본 협의회가 중시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 등 원만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One-Stop 상담 서비스의 실현이었으며, 기존의 수직형 대응 구조를 타파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아웃리치(Outreach) 지원을 통한 끊임 없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법조문상의 역할과는 다른 ‘현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법 제13조)’ 및 ‘지정 지원 기관(법 제22조)’ 관련 사업을 아동 및 청년의 자립 지원에 전문성과 실적을 지닌 ‘NPO법인 스튜던트 서포트 페이스(이하, S.S.F.)’에 위탁하고, 상담 거점을 청년 무직자 등의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후생노동성)’ 안의 종합 상담창구인 ‘사가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S.S.F. 수탁 및 운영)’에 병설하여 운영체계의 일원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본 법이 추진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2006년에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에서 각 분야의 구성 기관이 참여하는 ‘사가현 청년 취업 지원 네트워크(旧: 고용대책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충 형태로 발전적 계승을 통해 교육과 취업, 복지, 의료,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상부 조직을 중심으로 22개 기관 및 단체를 구성 기관으로 하여 사가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2. 고립된 아동·청년의 실태에 맞는 ‘One-Stop’ 상담 서비스의 제공

이처럼 사가현의 활동에서 ‘One-Stop형’을 크게 의식한 이유는 주요 지원 대상인 아동과 청년의 ‘실태’에 있다. ‘사가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하, ‘사가 서포스테’)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앞서 개설되었던 Job Cafe 등 기존의 취업 지원 창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 대상자 층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적 자립 지원이었다. 상담을 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시설형’ 지원의 연장선상에서는 사가 서포스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은 모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때 제 기능을 발휘한 것이 S.S.F가 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것이 ‘아웃리치(Outreach)’사업이다. 당시 사가 서포스테 이용등록자 중 약 40%가 자택 등으로 아웃리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였다는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고립된 청년 무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일이 실현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아웃리치 지원을 주축으로 한 사가 서포스테의 활동을 통해 본 법에 근거한 활동 추진 시 배려해야 하는 아동과 청년의 ‘실태’가 명확해졌다.

2009년도 방문 지원 대상자 중 등교 거부와 비행 등 재학 중에 부적응 경험을 한 사람은 97.2%로 비율이 높다. 무직 상태가 된 계기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대인관계 문제’로 88.1%,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52.8%에 달했다. 은둔형 외톨이 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약 50%의 당사자에게서 정신질환이 확인되었으며, 게임 장애 등의 의존 행동이 47.7%,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해 행위를 한 사람도 27.3%에 달했다. 변화 유도 등으로 인해 보호자와 본인의 관계성이 악화된 경우는 59.1%,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40.3%에 달했다. 한편, 고립이 장기화된 배경을 살펴보면 상담창구의 과제도 드러났다. 과거에 상담 등으로 상담창구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76.7%로, 63.1%가 전문가 혹은 여러 상담창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즉, 많은 아동과 청년이 SOS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상담창구가 적절하게 끝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협의

회 설치 시에는 당사자들이 가지는 ‘상담’과 ‘지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61.4%), 편견을 기본 전제에 두고 아웃리치 지원에서 사회참여 및 직업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3. 심각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고립된 아동 및 청년 실태

이와 같은 방침 하에 본 법에 근거한 사가현 내 유일한 지정 지원 기관인 S.S.F가 ‘허브기능’을 해냄으로써 사가현의 아동 및 청년 자립 지원 체제는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는 생활빈곤자자립지원법에 근거한 상담창구 ‘생활자립지원센터(사가시)’가 2016년도부터는 사가현 청소년 서포트센터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지원 거점 사가시 청소년센터 ‘아동·청년지원실(사가시)’이, 2017년도부터는 사가현 전역 전 연령층 대상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1차 상담창구 ‘사가현 은둔형 외톨이 지역 지원센터(현 장애인복지과)’가 새롭게 병설되는 등 ‘One-Stop’형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형’ 지원 거점에서 연간 7만 9천건 이상(2020년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실태가 밝혀졌는지, 지금부터 사가현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약 2,400명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자를 소개해주는 주체의 약 70%가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라는 점이 시사하듯, 사가현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기존 형태의 상담창구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심각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4.2%가 학교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신

질환(의심 포함)을 지닌 경우가 44.2%, 발달 장애(의심 포함)의 경우는 43.7%에 달했고, 게임 장애를 포함한 의존 행동이 확인된 사람도 28.7% 확인되었다. 한편, 빈곤, 학대, 가정 내 폭력, 보호자의 정신 질환, 알코올이나 도박 의존 등 성장 환경에 어려움을 지닌 사람도 63.6%에 달해, 이러한 어려움이 여러 겹으로 중첩된 다중 곤란 가정도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존 형태의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개인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4. S.S.F가 행정 기관과의 ‘협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5가지 대책

아동·청년 육성 지원에 대한 약 5년 간의 기본적인 정부 방침 및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수립한 <제3차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령> 안에 사회 전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초중고생의 자살자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는 사실,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화 등을 고려해 ‘생명·안전의 위기’, ‘고독·고립의 현재화(顯在化)’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저변이 넓어지고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S.F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받아 운영한 종합 상담창구의 상담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는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한 효과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S.S.F가 구축한 다직종 연계를 전제로 한 조직 체제를 들 수 있다. 기존 형태의 상담창구는 시책 별로 특정 자격증 소

지자를 추천해 그들이 전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과 청년의 과제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평가단계에서 편향성이 생기면 지원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후 후속 관리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S.S.F는 ‘통합형’ 지원 거점의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한 다직종 연계를 전제로 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 의료, 복지, 노동, 사법 등 관련 분야 29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교대제’를 도입해 각 사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일상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상담자 한 명 한 명의 개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팀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관계성 구축 시에는 효과적인 세대별 조건도 가미된 매칭을 실시하고자 20대~70대까지의 각 세대별 지원 요원을 고용하고, 대학, 행정기관과의 ‘협동형’ 인재 육성 시스템을 연동시켜 ‘오빠’, ‘언니’와 같은 존재로서 받아들이기 쉬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인재들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둘째, 다층적 지원 네트워크 구성이다. S.S.F는 설립 이후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협동’을 통해 창출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해마다 지원네트워크를 확충해 왔다. 700개 이상의 단체에게 협력을 얻어 창설한 정보 네트워크 ‘청소년 서포트 네트워크 in SAGA’, 직업적 자립을 위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는 150종의 직업인 네트워크 ‘청년의 미카타(아군, 우리편)부대’, 직업체험이나 취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사가현 내 190곳 이상의 사업주 네트워크 ‘쇼쿠오야(직장 부모)’를 비롯한 지역적 네트워크부터, 생활빈곤자자립지원법 수립에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중심 이사회가 이

고는 ‘생활빈곤자자립지원 전국 네트워크’, 전국 각지의 방문 지원(Outreach) 실천 단체가 모인 ‘일본 방문 지원협회’, 의료분야에서 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협동해 창설한 ‘커뮤니티 정신건강 아웃리치 협회’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목적별 기능별로 27개가 넘는 다층적 지원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이처럼 전국 규모의 연계 협력 체제 하에서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의 경계를 뛰어넘은 사회 자원 활용 등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존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었다.

셋째, 법 제도에 근거한 각종 계획 등을 통합하는 노력은 사가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법에 근거한 협의회를 비롯하여 최근 수립되는 법 제도 기반 시책에는 과제 해결을 위한 연계 강화, 수직적 행정 처리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의회 등 협의체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협의체가 난립해 회의 빈도와 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담활동 시간이 줄고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독·고립’과 같은 주제는 모든 협의체의 공통된 과제임에도 협의체 등의 연계를 미리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 수립되는 계획 등도 피상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되는 사태 또한 벌어졌다. 따라서, 본 법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아동·청년 계획’은 사가현 차세대 육성 지원 지역 행동 계획, 사가현 아동·육아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지원 계획, 사가현 모자 보건 계획, 사가현 한 부모 가정 등 자립 촉진 계획, 사가현 아동의 빈곤 대책 추진 계획과 일원화하여 수립되었으며 통합적이고 분야 초월적이며 협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에 기반해 설치된 각 협의회 등도 상당 수에 대해 S.S.F가 공동의 구성 기관 역할을 부여 받았으며, 현 차원에서는 본 법에 근거한 사가현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사가현 아동미래과), 사가현 은둔형 외톨이 대책 연락 협의회(현 장애복지과 위탁), 사가현 생활빈곤자자립지원연락회의(사가현 복지과), 사가현 취업빙하기세대 활약지원 플랫폼(사가 노동국)을 통해 합동으로 연수회나 사례 검토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수직적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신청 서류 및 상담 기록 시스템의 통합 관련 활동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상담 서비스는 신청에 기반하고 있어 수직적 행정 처리를 통해 전문 분업화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용 관련 신청서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S.S.F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16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심각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아동과 청년에 대해서는 세대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개의 상담지원 사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 수십 장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한다. 이것이 장벽으로 작용해 이용률이 늘지 않거나 지원 중간단계에서 이탈하거나, 사무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S.S.F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16개 상담 지원 사업의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서는 중앙정부와 현정부, 시, 각 관련부서와 1년반에 걸친 협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아 1장의 이용신청서 겸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서만 제출하면 프리패스 형식으로 관련 사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최초의 ‘일괄동의 방식’을 실현했다. 상담 기록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수직적 행정 처리를 통해 개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 동일한 후생노동성 내의 관련 사업마저 호환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시스템을 사용해 방대하고도 불필요한 사무작업이 발생했다. 따라서, S.S.F는 독자적

으로 전자 진료기록 시스템 점유율 1위 업체인 주식회사 레스코와 협정을 맺고 3개 정부부처 22개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보안을 보장하는 일본 최초의 ‘통합형’ 상담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제도상 실현되기 어려웠던 아동·청년 지원 영역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최대화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 평가 시스템 개혁 관련 활동을 들 수 있다. 현행 사업 평가의 구조는 수직적 행정 처리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 과제나 연령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아동·청년 지원 영역에서는 현재 상태나 소속 가정의 환경 상황 등이 완전 배제된 ‘진학률’, ‘취업률’ 등 기존 형태의 ‘단순화’된 평가 방법의 폐해가 크다. 실적이 중시되는 제안 등으로 인해 경쟁 원리가 작용할 경우, 심각하고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 주체를 찾아 떠돌게 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른바, ‘크림 스키밍’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 형태의 공적지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태의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 온 S.S.F.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실천과 다각적 검증을 통해 다층 평가진단 지표인 ‘Five Different Positions’를 개발하는 등 사업 평가 구조 면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90%의 개선 실적을 보유한 S.S.F. 과외식 아웃리치 지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니즈도 매우 높아 2006년도 완전 등교거부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원과 아웃리치 지원 하이브리드형 지원 ‘IT활용 지원 사업(사가시 학교교육과)’이 마련되었고, 이외에도 풍부한 실적이 있으며, 상근 직원이 담당하는 아웃리치 사업 ‘등교거부 아동 학생 아웃리치 업무(사가시 학교교육과)’, 22명의 상근 직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ICT를

활용한 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확충된 ‘등교거부 아동학생 지원 업무(사가시 학교교육과)’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 약 300곳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포괄적 방문 지원 사업 ‘방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립(학교복귀) 서포트 사업(사가시 학교교육과)’의 위탁을 받기에 이르렀다. 공통항목은 다각적 검증을 접목한 사업평가이며, Five Different Positions를 이용한 대인관계, 정신건강, 스트레스 내성, 사고(인지), 환경 수준 데이터의 개선 비율과 더불어 학교 복귀를 위한 5단계의 행동 개선 비율, 등교 거부 상태(13단계)에서의 개선 비율 등, 위탁을 맡기는 곳과 받는 곳 양쪽이 함께 사업 평가를 실시해 매년 활동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년의 실태에 맞는 사가현의 행정 처리와 S.S.F. 간 협동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아동·청년의 직업적 자립 등 단기적 성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청년층 무직자 수가 증가 또는 고공행진 중인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가현은 일관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4,900명(2007년)에서 3,100명(2017년)으로 감소했으며, 세대 중 무직 상태에 놓인 인구 비율도 줄어들면서 전국 상위권에 들었다.

5. 제3차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령’에 나타난 각오와 S.S.F. 활동의 미래

부등교, 은둔형 외톨이, 비행, 니트족 등 학교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상실하고 고립되는 아동·청년이 증가하고, 외부 단절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모두 고령자가 되어도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8050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부모 사망 후에 아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아사하거나 병사하는 이른바 ‘은둔형 사망’ 문제도 현재화(顕在化)하고 있다. 한편, 안전지대여야 하는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빈곤, 가정 내 폭력, 보호자의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 ‘도와 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본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사회적고립’과 관련된 문제도....

코로나 상황에서 수립된 ‘제3차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령’에는 고독 및 고립 대책,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SNS상담, 방문 지원의 내실화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시책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방향성을 보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담당 주체 육성으로 새롭게 마련된 ‘각지의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와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의 전국적 네트워크화’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담당 주체의 공조를 가능하게 했듯이, 온라인 연수 및 회의, 광역 연계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 장벽 없는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누구 하나 빠짐

없이, 비상 시에도 끊김 없는 지원’이라고 명시한 정부의 진지한 자세, 그리고 아동·청년 인덱스 보드 작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의 내실화 등 시책 추진에 대한 각오는 과거의 대강령에 비해 충분히 깊이를 더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이번 대강령 작성과 관련된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내각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책임감, 그리고 현장을 돌보는 상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대강령을 통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각오를 본받아 ‘어떠한 처지의 아동·청년도 외면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고립 및 배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사가현의 ‘협동형’, ‘창조형’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참고: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은 교육, 복지, 고용 등의 관련 분야에서 아동·청년 육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는 두 가지의 주요 목적을 가진다.

비영리활동법인 스튜던트·서포트·페이스 대표이사 | 타니구치 히토시

②, ③과 관련해서는 아도비지를 핵심 사업으로 자립과 관련된 각종 종합상담창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S.S.F.가 운영. 관련 분야의 종합상담창구 기능을 집약함으로써 스케일 메리트를 창출!
 진정한 의미에서의 'One-Stop형'에 가까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가현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의 실태 조사

<대상자 연령별 추이>

0-9세	10-19세	20-29세	30세 이상	미정	합계
123	1,339	573	327	36	2,398

< 실태 조사 대상자 >

2010 ~ 2016년도 '사가현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 이용자 2,398명

※2010.44~2017.3 신규 대상자 합계

※ 불성실 응답 케이스 167명 제외

2010년~2016년	NO	항목	있음	비율
배려해야 할 질환 및 장애	1	정신질환(의심 포함)	986	44.2%
	2	발달장애(의심 포함)	975	43.7%
	3	폭력	404	18.1%
행동 면에서의 문제	4	비행 및 불법범죄행위	253	11.3%
	5	의존(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이성 등)	640	28.7%
지원 경험	6	의료기관 진료	785	35.2%
지원기관 이용 시의 어려움	7	다중적 문제	1,890	84.7%
	8	대인 관계 문제	1,879	84.2%
가정환경	9	가족 문제(가족의 정신질환, 가정 내 폭력, 도박의존 등)	1,421	63.7%
	10	학대(의심, 과거 경험 포함)	308	13.8%
	11	피지원 곤란자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24	19.0%
실제 대상자 수			2231명	

지원 시 유의 사항

84.2%가 넘는 아동·청소년·청년에서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음

28.7%의 아동·청소년·청년에서 게임 장애 등 특정 의존 행동이 확인됨

40% 이상이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특단의 조치 필요

학대, 가정 내 폭력, 보호자의 정신질환, 도박 의존, 빈곤 등 생육 환경의 문제

63.7%가 가족구성원들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다중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이 8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기존 형태와 동일한 상담방식인 개별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다중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년 지원에는 '환경'에 대한 접근도 중요

기존 형태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태에 맞는 조직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S.S.F.가 '민관협동'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존 활동을 초월한 분야 횡단적 조직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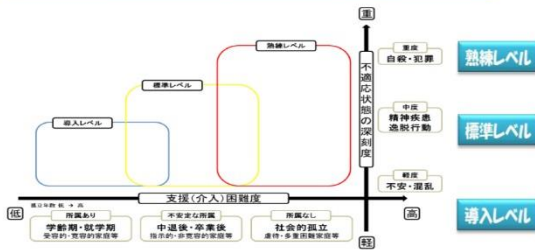
①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여러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의 팀단위 대응



【登録スタッフの保有資格】臨床心理士、公認心理師、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社会福祉士、精神保健福祉士、産業カウンセラー、学校心理士、小学校教諭、中学校教諭、高等学校教諭、特別支援学校教諭、幼稚園教諭、保育士、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ニング技能士、理学療法士、サービス管理責任者、SSF支援コーディネーター、職業訓練指導員免許、心理相談員、奨励師、医師、看護師、LD教育士等
【年齢】20代~70代の各世代を雇用：関係性の重視と世代間の連携 ※赤字は常勤職員のみ保有資格

※29종의 자격증 소지자로 S.S.F. 구성

③ 상담자의 상태 및 소속 환경의 상황을 반영한 등급 분류



※전략적 인재 양성 시스템 연동

② '교대(shift)제' 도입을 통한 상담자와의 다양한 매칭



※관련 분야 창구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실현

④ 지원 개입 곤란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연령 조건 등을 반영한 관계성 중시



- 약 250명의 등록 직원, 유급 직원 약 80명 중 거의 60%가 20~40대임.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한편, 역할 분담을 통해 세대 간 연계까지

※가치관의 차이가 잘 생기지 않는 연령대의 지원

'가치관의 채널을 맞춘다!' 철저한 위기 관리 하에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가족과 같은 상담원(수평적 관계성)을
적극 활용! 개개인의 상태, 특성에 따라 전문성만이 아닌
연령대도 고려한 상담자와의 매칭 시도

S.S.F.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별로 지역 차원에서 전국 규모에 이르기까지 27개 이상의 다층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① 다중 평가 진단 지표
「Five Different Positions」**

○대인관계○
Level1 대인 공포 등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 거절감이 강해 접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Level2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 거절감이 강한 상태이지만 특정인은 접촉 가능함
Level3 개별적인 대인 접촉은 가능하나, 강한 거부감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미흡함
Level4 소집단에서의 대인 접촉은 가능하며, 일정한 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Level5 집단 내에서의 대인 접촉은 가능하며,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정신○
Level1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로 심한 환각이나 망상, 자살 기도가 있었으며, 자해나 타인 상해 리스크가 높음
Level2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로 투약 등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자해나 타인 상해 리스크가 높음
Level3 정신질환 또는 경계 영역에 있으나, 어느 정도 자제가 가능하고 여건에 따라 한정된 사회 참여가 가능함
Level4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조인 등을 통해 자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함
Level5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

○스트레스○
Level1 스트레스 내성이 취약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신에 영향을 받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음
Level2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고 중등 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Level3 스트레스 내성은 중간 정도이나, 일정한 한 안에서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음
Level4 스트레스 내성이 비교적 강하며, 조인 등이 있으면 자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음
Level5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고 자제가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

○사고방식○
Level1 매우 비관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객관적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제도 불가능함
Level2 비관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제는 되지 않지만 가끔 객관적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음
Level3 비관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인 등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자제가 가능한 상태임
Level4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조인 등을 통해 합리적 사고를 하여 자제가 가능한 상태임
Level5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

○환경○
Level1 학대나 가정 내 폭력, 불법 행위 등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며, 행정적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태임
Level2 가정 내 폭력이나 가족 간 대립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가족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
Level3 가족 간 불화 등의 가족 문제가 존재하며, 가족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
Level4 가족 문제가 존재하지만, 가족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Level5 일반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가족 기능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② 본 사업의 행동 개선 항목(예전 방식)

개선(예전) 행동 개선 항목	
1. 등교 시작 등 학교 복귀의 징후가 보임	38%
2. 적응 지도 교실 등에 다니고 있음	8%
3. 각종 정보 기관과 연결되었음	14%
4. 생활이나 학습 습관이 개선되었음	44%
5. 교원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성 회복 경향이 보임	26%

③ 사가현 지정 양식: 부등교의 상태(13단계)

부등교(등교 거부)의 단계	
1. 등교하지 않고 거의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음	
2. 등교하지 않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함	
3. 등교하지 않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지만, 가끔 외출하는 경우가 있음	
4. 등교하지는 않으나 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학교 외 시설은 방문함	
5. 등교는 하지 않으나 적응 지도 교실은 방문함	
6. 1년에 몇 번 등교함	
7. 한달에 1번 정도 등교함	
8. 한달에 몇 번 등교함	
9.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등교함	
10. 일주일에 2~3일 정도 등교함	
11. 일주일에 4일 정도 등교함	
12. 한달에 몇 번 결석하지만 그 외에는 등교함	
13. 거의 매일 등교함	

개인적인 자질이나 감각, 경험에 근거한 지원이 아닌 증거 기반의 근거 있는 지원 전개가 중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단위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공통언어'로서의 간이 진단 지표가 필수!
사업 평가에도 위탁을 하는 쪽과 양측의 지표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적절하게 PDCA 사이클을 운영!

전국적으로 악화,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가현에서는 '청년 무직자'는 감소 경향을 나타냄!
(2017년 4,900명 ⇒ 2017년 3,100명, 개선율은 전국 최고 수준!)

支援開始前の状態段階 (単位:人)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1				1					
2		5	12	4	2	5	3	1	1			1	1
3			5	3	1	1	1	3	1	1	1		1
4					2								
5							1	1				1	
6								2					
7								1					
8			1					2	1	1		2	
9										1	1		1
10											1	3	1
11													
12													
13													2



第1分科

第2分科

第3分科

COVID-19時代の進路教育，韓国の経験

金 承 保

(韓国職業能力研究院 前任研究委員)

COVID-19 時代の進路教育，韓国経験

金 承 保

(韓国職業能力研究院 前任研究委員)

新型コロナ感染拡大を巡る今回の状況は、“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を続けていても学業が中断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遠隔”による授業をすべての学生と教師、そして保護者が同時に経験せざるを得ないことになった。そしてこれは、進路教育にもさまざまなレベルでの挑戦と刺激を与えた。

2020年1月初め、韓国内で初の感染者が発生したあと、韓国内の小中学校の新学期は1回目(2月23日)、2回目(3月2日)、3回目(3月17日)、4回目(3月31日)の全4回にわたって延期した末に非対面による新学期を実施するに至った。4月9日の高3および中3の非対面による新学期を筆頭に4月16日の高1、2および中1、2、小4、5、6年の非対面による新学期を経て、4月20日の小1～3年までの非対面による新学期まで順次おこなわれていった。全ての学校における非対面授業は、国家レベルの正規教育課程を“遠隔”で行うことになる最初の試みとなった(ナムグン・ジョン、2020)。

すでに同じ事務室、同じ教室内でさえメッセージや通話アプリなどSNSで連絡を取る量が、対面や接触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量を圧倒する、いわゆる ‘Phono Sapience’ である。IT産業も韓国経済の主力になって久しい。しかし、いざ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により全面非対面での新学期となった時、私たちの学校教育ではITおよびデジタル基盤の学習インフラが、どれほど整備不足で整っていない部分が多いかを如実に示した。特に非対面での新学期は、学校

での学習と生活を家庭で遠隔によって行うため、学校は遠隔授業を進めようとし、家庭は学生の遠隔授業アクセスと生活指導のために、それぞれの次元で重圧を背負うことになったのだ。(キム・スンボほか、2021)

最初にインターネットと機器/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などのハードウェアの面から、学校では無線インターネット、ノートブック、タブレットPCなどの補給不足が、そして家庭ではノートブックの新規購入、プリンターの新規購入などの経済的な負担が、非対面による新学期の初期には問題となった。

2つ目に、ZOOMやEDUNET(教育情報総合サービス・システム)などの遠隔機器に慣れた教師が、非対面による新学期の初期には各学校に5～10%に過ぎず、これらの教師の業務に負荷がかかる結果となった。そして遠隔授業を準備するために忙しく走り回る保護者は、簡単な機器の操作を問い合わせる窓口さえも整っていない現実に慌てふためいたものだった。

3つ目に、遠隔授業によって生徒の学習効果や学力低下への心配が“私教育”への行列となり、家庭の経済水準が学力の差に繋がるという点から、公的な教育への不信の一因ともなった。

4つ目に、遠隔授業の期間中、生徒には起床と就寝の遅れ、体力の低下、肥満と怠惰、社会性の低下、デジタル機器使用量の増加、遅刻や欠席・早退が頻繁となるなど、マイナス要因となる生活習慣が増えていった。

5つ目に、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初期の遠隔授業方式は、EBS放送などの動画講義が中心となった。だんだんとライブストリーミング授業が導入されたが、集中の難しさ、出欠確認および生徒を統制することの難しさ、授業による疲労感の激化、授業の質低下などの問題を依然として解消できずにいる。

教育部に進路教育政策課が生まれ、進路専任教師が配置された2011年を、韓国で本格的な進路教育政策が施行された元年とするならば、進路教育の歴史はまだ10年たったにすぎない。これを言いかえると、学校教育でのさまざまな出来事や問題、紆余曲折や混乱は、そのまま、あるいはそれ以上に進路教育に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になる。実際に非対面による新学期の初期となった2020年1学期は、学校の小中高を問わず、ほとんどの学校が進路に関する活動や授業などまったくできなかったか、2学期に延期する傾向にあった。そして“創意的体験活動”など比較と非対面の進路授業などは、その傾向が非常に深刻であった。

毎年実施する韓国職業能力研究院の学校進路教育実態調査によると、新型コロナ感染拡大の前後(2019年7月/2020年10月)の比較結果も、こうした状況を一部反映している。

1つ目に、生徒の進路教育への参加が全般的に、前年度に比べて減少した中で、非対面による進路授業や心理検査などに比べて、特に体験活動や進路相談、同好会活動などオフラインの進路教育が大幅に減少した。

2つ目に、保護者を対象とする各種進路教育研修や、特別講演などへの参加率が大幅に低下した。これは、韓国の学校進路教育の特性から、進路指導の1つのテーマとして、あるいは進路活動の助力者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す保護者の進路教育への参加経路に、深刻な障害ができたことを意味する。

3つ目に、“自己理解と社会性”、“職業の理解”、“進路模索”および“進路設計と準備度”の4つの領域を5点満点で評価する生徒の進路開発力量レベルでは、当然ながらすべての学年で大幅に低下した。

そんな中で幸いなことは、新型コロナの拡大感染にあっても、学校の進路教育が進むべき方向性を模索する機会にもなったということだ。そして、これは韓国の学校進路教育が、一般的な教科活動とは違ういくつかの装置に起因する。

1つ目に、教育庁と地方自治体が協力して、全国市郡区ごとに設置・運営している地域単位の進路体験支援センターの機能と役割だ。このセンターが地域ごとに導入したe-studio、遠隔進路体験およびメントの提供、非対面進路博覧会の開催、体験ツールキットの提供など、各種遠隔およびオン・オフをブレンドした進路活動プログラムは、学校の進路教育の空白をある程度補完しつつ、同時に進路教育の今後の方向にも示唆するものを残している。

2つ目に、政府や道市が進路教育を支援する各種オンラインシステムの役割である。教育部が運営するオンライン進路情報ネット“キャリアネット”(運営：韓国職業能力研究院)、進路体験支援システム“^{クム}夢の^{ギル}道”(運営：大韓商工会議所)、オンライン進路メンタリング/起業体験システム“YEEP”(運営：韓国青年起業家精神財団)などの利用率と活用頻度が新型コロナ感染拡大によって急激に増加した。京畿道教育庁のサイバー進路教育システム“^{クム}夢の^{ナルゲ}つばさ”など各道市教育庁の各種オンライン進路支援システムも、同様に利用率が大きく増加した。

3つ目に、各学校に配置された進路専任教師の役割である。学校ごとに非接触型ツールを使って進路授業の範囲や幅を革新的に拡張する事例が、一部ではあるが試みられている。対面授業では試みにくい、地域の大人たちのインタビューをオンラインで見たり、生徒みずから計画した活動を教師が非対面で指導したりする事例

が現れた。そして、これは社会と教室をつないだ、生徒みずからの社会探索を促進する進路教育の本質的な特性を反映している。

すべての教員と生徒、保護者が同時にともに経験した“遠隔アクセス”による教育は、韓国の青少年への教育および進路教育にあって、画期的な経験となった。そして新型コロナの感染

拡大が長期化する中で、このような遠隔教育が決して一過性のイベントではないことも確かになっていった。今や進路教育もエデュテックとデジタル技術の成果を積極的に活用して、非接触型を含めた新しい方式のカリキュラムと学習コンテンツを積極的に模索すべき時に来ている。

参考文献

金承保, ハンエリ, チェヨンソプ, オムミジョン (2021). 「非対面時代における人的資源開発の革新」, 韓国職業能力研究院

ナムクン・ジョン (2020). 「コロナ19による学校の遠隔授業の運営実態、教育政策フォーラム」 328号, 韓国教育開発院

教育部・韓国職業能力研究院 (2021). 「小・中等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現況調査結果と報告」, 報道発表資料(2021. 2. 24.)

COVID-19時代の進路教育, 韓国の経験

韓国職業能力研究院 前任研究委員 | 金承保

政府の伝染病対応と遠隔授業の導入

新学期の延期とオンライン新学期

- ✓2020年 1月、最初の陽性患者が発生
- ✓4回にわたって**新学期の延期**
1回目(2月 23日) → 2回目(3月 2日) → 3回目(3月 17日) → 4回目(3月 31日)
- ✓順次**オンライン**で授業開始
- ✓4月 9日(高3、中3) → 4月 16日(高1・2、中1・2、小4・5・6) → 4月 20日(小1・2・3)

全面的な遠隔授業の導入

- ✓**国家レベル**で**正規教育課程**に '遠隔授業'導入を初めて試みる
- ✓学校教育のICTおよびデジタル基盤 **学習インフラの脆弱さ**が表面化
- ✓遠隔授業を行う**学校**はもちろん、遠隔授業のアクセスを支援して家庭での生活指導を担当する **家庭でもさらに負担が発生**

遠隔授業で現れた問題点

1. ハードウェアの準備

- ✓学校の無線インターネット、ノートブック、タブレットPCなどの **インフラ不足**
- ✓家庭: ノートブック、プリンターの購入などによる **経済的な負担**

2. 遠隔機器への慣れ

- ✓遠隔機器に慣れた教師に **業務が集中**
- ✓家庭内で遠隔授業を受けるための **問い合わせ窓口が不在**

3. 私教育ニーズの増加

- ✓学習効果および学力の低下を憂慮して私教育ニーズが増加
- ✓これにより学力に家庭の経済的格差がより反映されることに

4. 否定的な生活態度

- ✓遅い就寝と起床、体力の低下、肥満・怠惰、社会性の低下、頻繁な遅刻や欠席など

5. 遠隔授業の限界

- ✓技術的な改善にも **かかわらず授業への集中と出欠確認の難しさ、疲労感の増大、授業の質の低下などの問題が発生**

学校進路教育への影響

学校教育の問題が進路教育にも影響

- ✓オンライン授業の初期: 大部分の学校が進路に関する活動・**授業を取り消すか延期**
- ✓創意体験活動など **比較とオンライン進路授業**の場合、さらに深刻

1. 進路教育の全般的な現象

- ✓主要教科に比べ **優先順位**で後回しになった‘進路教育’は全般的に減少
- ✓オンライン基盤の進路授業、心理検査に比べて、体験活動、進路相談、同好会など **オフライン基盤の進路教育**が大幅に減少

2. 保護者参加の機会遮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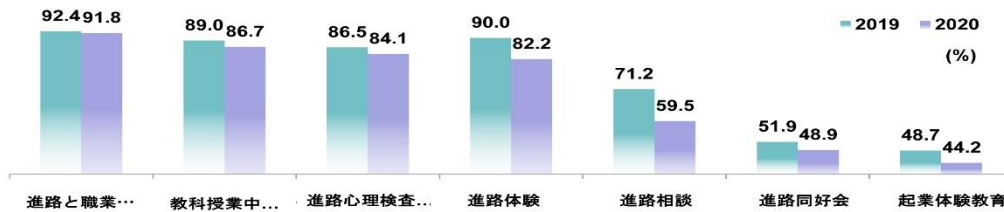
- ✓保護者を対象とした進路教育研修や特別講義などの参加率が急減
- ✓進路指導の主体でもあり主な助力者として **保護者の役割に障壁が発生**

3. 生徒の進路開発力量が下落

- ✓ **進路開発力量**(‘自己理解と社会性’、‘職業の理解’、‘進路模索’、‘進路設計と準備度’の4領域で評価) **点数の大幅な下落**

学校の進路教育への影響

[中学校 進路活動への生徒の参加率]



[保護者の進路研修・特別講義参加率]



* 韓国職業能力研究院(2021).『学校進路教育の実態調査』

進路教育の可能性と新たな模索

1. 地域単位の進路体験支援センターの機能と役割

- ✓ 学校外地域社会で学校の進路教育を支援
- ✓ e-studio、遠隔進路体験・メンタリング、オンライン進路博覧会、体験ツールキットなどを開発・運営

2. 全国単位の各種オンライン支援システム

- ✓ 教育部キャリアネット(韓国職業能力研究院)、『夢の道』(大韓商工会議所)、『YEEP』(韓国青年起業家精神財団)などの利用率および活用頻度が急激に増加

3. 学校単位の進路専任教師

- ✓ 進路授業の範囲と幅の拡大、非対面による生徒主導の模索の指導など **非対面ツール**を使った進路教育の新たな模索
- ✓ 生徒主導の模索を促進するなど進路教育に **デジタルの特性**を活用

- 伝染病のための一過性イベントではなく **遠隔/非対面教育**へ
- 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た **新たな進路教育カリキュラムと学習コンテンツの模索**が必要



第1分科

第2分科

第3分科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

三村隆男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

三村隆男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

1. 進路保障をめぐる経緯

1) 進路保障の理念

日本には進路保障という語句がある。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で、改めてこの語句の意義を確認する機会を得たことを嬉しく思う。進路保障の理念は、児童の権利条約第28条「すべての児童に対し、教育及び職業に関する情報及び指導が利用可能であり、かつ、これらを利用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に原点がある。条文中の「情報及び指導」が進路実現に向けての学習や訓練、体験及び相談、さらには選択や選抜などの機会が公正・公平に提供されることがすべての児童生徒に約束されている状態と捉えると進路保障そのものの理念と一致するからである。

2) 進路保障へのひとつのたたかい

わが国高校進学率は、1955年51.5%、1965年70.7%、1975年91.9%と急上昇し、一方で高卒就職率は1955年47.6%、1965年60.4%、1975年44.6%と推移し、1960年代前半でピークを迎えた。当時、被差別部落（同和地区）出身の高卒就職希望者に対する理不尽な差別が行われていた。「1965年には第一回進路保障協議会を開いて就職差別撤廃に向け組織的に取り組むことを申し合わせ」¹とされ、1960年代に同和地区の高卒者の就職差別の取り組みから「進路保障は同和教育の総和」と位置付けられた。

高卒で就職する際に企業側から用意された社用紙（履歴書）の使用をやめ、1973年、労働省、文部省、高等学校校長会の三者により作成された「全国統一応募用紙」を一律に使用することになった。これによって就職差別を助長する項目（例えば本籍地や親の職業）の記入を高校生が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その後も「全国統一応募用紙」の改訂は続き、進路保障への取り組みは継続された。

3) 高校中退や貧困に対する進路保障の施策

現在、高校中退者は42,882人（1.3%）である（文部科学省、2020）²。2017年度から、高校中退者等を対象に、高卒程度の学力を付けるための学習相談・学習支援モデル構築を目的に「学びを通じたステップアップ支援促進事業」を開始した。対象は都道府県の教育委員会など地方公共団体であるが、開始年から2020年までの4年間で、3、6、5、3団体と参加は低調である。

厚生労働省「2019 年国民生活基礎調査」によると、子どもの貧困率は13.5%（2018 年の所得）となっており、日本全国の子どもの約7人に1人が貧困状態にあると推計されている。

2019年6月「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が成立し、「子ども一人一人が夢や希望を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子どもの貧困の解消に向けて、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の精神にのっとり、子どもの貧困対策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国等の責務を明らか」にした。さらに、貧困対策の総

¹ 「就職差別撤廃と進路保障の課題 東京部落解放研究所 副理事長 松浦利貞さんに聞く」部落解放同盟東京都連合会 URL: <http://blitokyo.net/syuusyoku/matuura20081.pdf>

（2021年8月23日閲覧）。

² 文部科学省（2020）2019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確定値）。

合的推進のために、同年 11月「子供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が閣議決定された。

こうした法律や大綱が徹底して実施されるためには、進路保障の理念を今一度学校教育に問いかけその意義を再考する必要がある。

2.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実証データ

1)「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全国学力テスト）」の結果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でわが国は2020年3月2日より全国の小中高を一斉に臨時休校とし、それはほぼ5月一杯まで続いた。

文部科学省は2021年8月31日、小学6年と中学3年約194万人対象に、国語と算数・数学の2教科について2021年5月に実施した「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全国学力テスト）」の結果を公表した。特に2020年4月以降の休校期間が成績（平均正答率）に与えた影響を調べた。具体的には、休校期間の長さを10日ごとに区切り、期間ごとの成績を比較したのである。

その結果、小学国語では休校期間が最も短い「10日未満」とした学校の平均正答率が65.3%で、最長の「90日以上」の64.3%より高かった。中学数学では「10日未満」が54.4%で、「90日以上」の56.7%と比べて低かった。文科省は「休校期間と成績は全体で見ても相関がなかった」と分析する。

2) 東京都大田区の調査

2020年9月～10月、東京都大田区が実施した区立小学校5年生及び保護者対象の調査結果「大田区子どもの生活実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2021）（以下「報告書」）がある。保護者及び子どもに対し学校を通して調査を実施した。有効回答率は、保護者84.4%、小学校5年生86.0%であった。「報告書」では、「家庭」「子ども」「世帯収入」の3観点から「生活困難」を定義した。その中で「Covid-19の影響で2021年3月～5月まで学校が休業した。この影響で自分の子どもの学力が低下したか」の問い

に対する保護者の回答では、「とてもそう思う、そう思う」が、非生活困難層で37.2%、生活困難層で55.2%の回答であった。

文部科学省の全国調査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休校期間と成績の相関はないとしたが、東京都の一特別区では生活困難を背景が背景と思われる成績の低下が保護者により認識されている。実証データは進路保障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形で検証すべきである。

3. GIGA スクール構想の実現へ

OECD調査「学校外での平日のデジタル機器の利用状況（学習）の国際比較」（2018）では、「学校の勉強のために、インターネット上のサイトを見る」をはじめとする12項目中11項目で、日本は加盟国中最下位であった。

翌2019年12月には、「1人1台端末は令和の学びの『スタンダード』～」としたGIGAスクール構想に文部科学省は着手した。休校終了の直後、2020年の6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応した持続的な学校運営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の通知し、「8月までには、少なくとも小学校第6学年・中学校第3学年等の最終学年の児童生徒や、経済的理由等でICT環境を準備できない家庭に対してICT環境が整備されることを目指す」とした。

文部科学省は2021年3月に「GIGA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向けたICT環境整備の進捗状況について」（文科省）発表した。その中で、「端末の調達に関する状況」では2020年度内に全自治体等のうち97.6%が、納品を完了する見込みで、ほぼ全ての公立小中学校で1人1台情報端末が使える環境が整うことになる。「校内通信ネットワークにおける環境整備」については、4月末までに97.9%で共用開始とな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り、GIGAスクール構想が一挙に実現へと加速されたと行ってもよい。

4. 量的充実と質的配慮

多様な子供たちを誰一人取り残すことなく、子供たち一人一人に公正に個別最適化され資質・能力を一層確実に育成できるICT環境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として始められたGIGAスクール構想であるが、ICT環境の量的充実による学習の保障にとどまってはならない。

すべての児童生徒に「一人一人のキャリア形成と自己実現」を果す学びが実現されてはじめて個別最適化が果たさ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もちろん量的充実が基盤とはなるが、その中での質的配慮を求める進路保障の視点はいかなる時代においても忘れてはなら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教授 | 三村隆男

キャリア教育と進路保障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第28条1ー(d) (児童は18歳未満の者をさす)

(d) **すべての**児童に対し、教育及び職業に関する情報及び指導が利用可能であり、かつ、これらを利用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d)すべての児童に対し、教育及び職業に関する**情報及び指導が利用可能**であり、かつ、これらを利用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

進路実現に向けての学習や訓練、体験及び相談、さらには選択や選抜などの機会が公正・公平に提供されることがすべての児童生徒に約束されている状態

進路保障

1973年 「統一応募用紙」の作成

…現在企業から独自に定めて用いている応募書類には、適性・能力と直接関係ない事項が含まれ、しかもこれらの事項を判断の資料として採否の決定が左右される場合があり、事実、片親又は両親を欠く者、心身に障害のある者及び定時制・通信制在学者等に対する差別的な扱いがみられ、とくに同和対策対象地域住民に対する就職に際しての**不合理な差別の事例**は後を絶たないところ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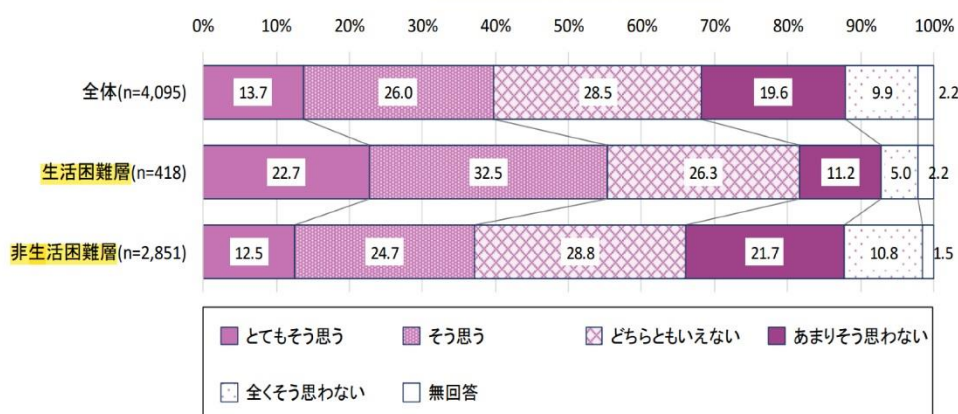
(労働省職業安定局長「新規高等学校卒業者採用・選考のための応募書類について」1973年3月1日)

・労働省、文部省、高等学校校長会の三者により、全国高等学校統一応募用紙制度発足。

「大田区子どもの生活実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2021)より

設問 24 A (新設) 大田区においては、3月から5月末ま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を防ぐため、公立小学校は臨時休業となりました。これによるお子さんへの影響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したか。(SA)

図表 1-2-6-8 お子さんの学力が低下した



GIGA スクール構想の実現へ

～1人1台端末は令和の学びの「スタンダード」～

多様な子供たちを誰一人取り残すことなく、子供たち一人一人に公正に個別最適化され資質・能力を一層確実に育成できる教育ICT環境の実現へ

○コロナ禍の中で、ICTを活用した学習方策の急激な進展と、ICT環境の格差から生じる学習の格差を、公教育において是正するため、令和2年において補正予算を組み本構想の加速化を生んだ。

○新たな目的:「1人1台端末」の早期実現や、家庭でも繋がる通信環境の整備など、「GIGAスクール構想」におけるハード・ソフト・人材を一体とした整備を加速することで、災害や感染症の発生等による学校の臨時休業等の緊急時においても、ICTの活用により全ての子供たちの学びを保障できる環境を早急に実現する。

文部科学省「児童生徒の自殺予防に関する調査研究 協力者会議(令和3年度)(第1回)」配付資料

令和元年(平成31年)及び令和2年における児童生徒の自殺の原因・動機別表 ～原因・動機数における上位10項目～

(人)

令和元年 の順位	小項目	令和元年 の人数	令和2年の 人数(順位)	大項目
1	学業不振	43	52(2)	学校問題
2	その他進路に関する悩み	41	55(1)	学校問題
3	親子関係の不和	30	42(3)	家庭問題
4	家族からのしつけ・叱責	26	26(6)	家庭問題
5	病気の悩み・影響(その他の精神疾患)	26	40(4)	健康問題
6	その他学友との不和	24	26(7)	学校問題
7	入試に関する悩み	21	18(8)	学校問題
8	病気の悩み・影響(うつ病)	20	33(5)	健康問題
9	失恋	16	16(9)	男女問題
10	その他交際をめぐる悩み	13	5(17)	男女問題

※児童生徒の自殺の原因・動機について、令和2年における10位の項目は「その他家族関係の不和」(家庭問題)16人。

(令和元年の場合、「その他家族関係の不和」は11位(11人))

※同順位の項目が多く表に記載しきれない場合がある。※小項目の「その他」は除く。※複数計上あり。

※自殺の多くは多様かつ複合的な原因及び背景を有しており、様々な要因が連鎖する中で起きている。

(出典)厚生労働省「自殺の統計-各年の状況」を基に文部科学省において作成。 4



| 第1分科

第2分科

| 第3分科 |

学校外の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 キャリア教育支援事例

— 松坡区における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事例を中心に —

崔 連 洙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梧琴Hub館長)

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進路教育支援事例

— 松坡区における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事例を中心に —

崔 連 洙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 梧琴hub館長)

1. 学校外青少年の現況と支援の仕組み

1) 学校外青少年の現況

毎年5万人ほどの青少年が、公的教育課程の学業を中断しており、2019年基準で全国24万人と推算されており、松坡区でも毎年900人ほどと推定されている。

2015年、学校外青少年支援法が制定されて、女性家族部に学校外支援課と市道および市・郡・区219の“^{꿈을}夢をあげる”センターを開設・運営している。対象とは、満9-24歳の学校外青少年で、3か月以上欠席、就学義務を猶予している青少年、除籍、退学処分を受けた青少年、自主退学した青少年、上級学校への未進学青少年などが学校外青少年と規定されている。

2) 学校外支援センター“夢をあげる”の役割

女性家族部の学校外支援課を中心として、関係部署が共同して教育部、地域社会の青少年統合支援体型(青少年安全ネット)の発掘と連携による、学校外支援センター“夢をあげる”センターで、青少年の特性と要望に合わせたサービスを支援する。サービスの種類は、相談支援、教育支援、職業体験および就業支援、自立支援などがある。

学業を望む青少年には、クラブ活動、学習メンタリング、高卒認定試験への支援、大学入試説明会など学力の取得および上級学校進学支援

などのサービスを行っている。

職業を望む青少年には、高卒認定試験に向けた学習支援と進路教育および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による進路設定ができるように支援し、自己紹介書や履歴書の作成法を指導、青少年の専門訓練機関である「明日(“내일”)は、

“明日”の意味もあり、“私の仕事”という意味もある)を作る学校」と雇用労働部の職業訓練プログラムと連携して職業訓練と就業を支援することによって、地域社会でさまざまな仕事を体験することによる自立の持続を支援する。

引きこもりやニートの青少年には、相談の上で興味を誘うような、個人に合わせたさまざまな体験を誘導する。例えば無気力から脱出するためのバリスタ・製菓製パン入門、楽器を習って演奏する、徒歩旅行で生きる気力を取り戻して孤立から脱出、さらに状況に合わせた高卒認定試験への学習支援も並行して、人生への活力を探せるように支援する。

3) 地域社会の非認可(無認可)代案学校との連携

国内では数多くの非認可(無認可)代案学校が、さまざまな形で設立され、学校外青少年にさまざまな学習の場を提供している。松坡区域でも、10校ほどの非認可代案学校があって、青少年のさまざまな希望を反映した小規模代案学校が運営されている。

これらの共通点は、15人程度の小規模な学校で、地域社会の一部を学校の教育の場として使っている。小規模学校の弱点となる空間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地域にあるさまざまなスペースでさまざまな専門家から学び、地域で進路を見つけるという強みがある。

松坡区では、松坡区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地域の非認可代案学校が協議体を構成し、多様なニーズを持つ青少年に対して多様な学習選択ができるような情報を提供している。

2. 新型コロナによる環境の変化と適応

1) 学校外青少年を教育する環境の変化

2年近くなる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から、正常の授業よりは対面型と非対面型の教育を並行しながら、初めて経験する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による多くの混乱と試行錯誤に対する代案を探し求めている。

一時的には、公的教育の非対面による家庭学習への転換によって、学校外青少年の数自体は減少しているものの、家庭に引きこもっている青少年の数は増加しているため、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が鎮静化し、学校が正常化すれば、学校外青少年の数はさらに増えると思われる。

2) オンライン非対面授業とキットを活用した体験

初期には、非対面授業の教育機材とプログラムが整わずに混乱もあったけれど、徐々にZOOMを活用した非対面授業のやり方が開発されていた。基本教科への学習モデルと体験学習は、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から提供されたさまざまな体験キットを活用した動画を見ながら、望遠鏡の組み立てやインテリアライト(間接照明)、Bluetoothスピーカーの組み立てなど、家庭でオンライン活用体験ができた。

進路体験は、YouTubeを活用して多様な分野の専門家(ユーチューバー)の動画を視聴して議

論したり、小グループで現場を訪問したりするなど、青少年の興味を誘発するような様々な形での進路探索と体験を青少年たちに直接的または間接的に行っている。

3) 家庭訪問と生徒の深い理解

非対面オンラインの家庭学習を進めながら、課題と体験キット、マスクを用意し、教師が学校外青少年の家庭を週に1回ずつ訪問した。生徒の家庭環境と生活をより深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生徒と教師の間に信頼感を高めることができた。

生徒の特性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さらに家族の雰囲気や状況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た。その結果、生徒の未来と進路指導に関して保護者とじっくり話し合いをする機会を与えた。小規模の代案学校の特性が、新型コロナの流れの中で強みとして作用している。

3. 青年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構築の実験

1) 後期青少年の起業および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の実験

学校外青少年が高卒認定試験を終えたら、大学進学が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就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だ就職のための力量を持ち得ていない学校外青少年には、大きな不安と障壁にぶつかることになる。彼らのための地域社会における青年起業および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が構築されていれば、不安を持たずに2~3年間は様々なアルバイトを経験したり、実務的な創業課程を習得したり、職場体験、各種体験旅行をしながら、自分の強みと興味、適性をもとにした今後の10~20年を準備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2)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梧琴hub青年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

(1) YOUTH CEO課程

満19～24歳の後期青少年13人を対象に、多様な仕事と起業家精神を育成するための起業家課程を開設し、起業精神の高揚と創業振興院(KISED: 中小企業庁の傘下機関)へ挑戦プロジェクトの公募、事業計画書の作成、さまざまな専門家の講演会やセミナーを聞きながら起業家の夢を育てる。

(2) 室内建築現場マネージャー養成課程

青年の専門的な仕事の創出、現場の人材不足を解決するため、地域のインテリア会社と韓国室内建築アカデミー共同組合を結成し、第1期生14人を養成、本人が希望すれば採用を条件として進めることも可能である。

(3) KOTRA貿易基盤造成デジタルB2B事業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の共有オフィスで高卒認定試験を終えた後期青少年および一般の青年30人を採用し、デジタル基盤事業を行っている。漸進的にレベルアップしてデジタル事業を進めている。

(4) グローバル外食ビジネス起業課程

2022年1月の起業を目標に東南アジア料理と韓国料理をミックスした、起業に向けたメニューの開発とポップアップストア課程を運営している。スペースと運営資金を得るための起業ファンドを作って運営しており、韓国内に限らないグローバル起業チームを組み、スタートアップを準備中である。

参考文献

女性家族部 (2020)「青少年白書」, 193-197.

ハンビツ青少年財団“愛の学びの場”の事例の引用.

松坡区学校外支援センター,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の事例の引用.

学校外の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キャリア教育支援事例

- 松坡区における学校外支援センターと代案学校の事例を中心に -

松坡未来教育センター 梧琴 hub 館長 | 崔連洙

1. 学校外青少年の現況と支援の仕組み

現況

- ▣ 発生人数
 - ・ 毎年5万人、2019年 24万人 推算
- ▣ 支援法の制定
 - ・ 2015年 学校外支援法 制定
 - ・ 女性家族部 学校外青少年支援課 新設
 - ・ 全国 市郡区 219の学校外支援センター “夢をあげる”設置
- ▣ 対象
 - ・ 満 19歳～24歳 学校外青少年
 - ・ 小・中・高 自主退学および退学
 - ・ 3か月以上の欠席および未就学
 - ・ 上級学校に未進学、就学義務の猶予
 - ・ 学業中断熟慮制 対象(潜在的な学校外青少年)

個別対応型支援

学校外青少年支援センター(219か所)

- ・ 1:1個人相談
- ・ きっかけ作り
- ・ 進路模索および設定
- ・ 学業指導
- ・ 職業訓練および就業支援

- ・ 学業復帰および大学進学
- ・ 資格取得および就業

民間協業 支援



2. 新型コロナによる学校外教育環境の変化と適応

- 2年間続いている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により、対面と非対面教育を並行

☞ **さまざまな試行錯誤と状況に合わせた代案、暫時的な適応**

1 一時的に学校外青少年の数が減少

- 公教育の非対面授業への転換により、学校外青少年の数が一時的に減少傾向にあるが、家庭にひきこもる青少年が増加しており、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が鎮静化し、学校が正常化すれば、学校外青少年も増えると思われる。

2 オン/オフライン授業の並行

- 2020年1月から現在までオン・オフラインでZOOMを活用した授業の並行
- 初期の段階では、準備不足で様々な混乱が発生していたが、漸進的かつ継続的な見直しが行われている。

3 支援センターと地域の代案学校の有機的な連携活動

- さまざまな体験キット(望遠鏡、Bluetoothスピーカー、インテリアライトなど)とオンライン動画を活用した家庭学習を提供
- 家庭を訪問し、課題や体験キット、生活必需品などを渡しながら、相談を行うことで生徒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た。

4 YouTubeを使った進路教育

- 多様な分野の専門家(YouTuber)の動画の視聴と討論、小グループでの現場訪問などにより興味と参加を誘導



3 後期青少年のための起業と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の必要性

- 高卒認定試験を終えた学校外青少年が、大学進学か就業を選ぶ際、就業のための力量と準備の不足により、進路障壁に直面する

☞ **後期青少年起業が地域社会で健康に自立を準備できる青年起業および就職プラットフォームの必要性を提起**

1 Youth C・E・O

- 対象：起業に関心がある後期青少年(19-24歳)
- 内容：起業家精神、起業教育、スタートアップ、社会的経済、ビジネスモデルの樹立など特別講義およびメンタリングプログラム(オン/オフラインで並行)の運営

2 KOTRA貿易プラットフォーム B2B 青年デジタル就職事業

- 対象：松坡区内 後期青少年および一般青年
- 内容：KOTRA貿易プラットフォーム バイコリアB2B事業データ整備および検収
- 成果：1次 30人を採用(2021. 4)、2次 24人追加採用予定(2021. 9) エンジニア人材を確保するための事業高度化

3 室内建築現場 マネージャー養成教育

- 青年たちに室内建築の専門技術教育を行い、現場の人材不足を解決し、持続可能な専門的な雇用を創出、専門インテリア会社と協力して共同組合を設立して、1期生14人を養成。本課程を修了したら、希望に合わせた就業を保障する。

4 ハンビクグローバル 東南アジア外食起業の準備

- 2020年8月現在、東南アジア料理をテーマに後期青少年と外食起業を準備中。
- ミャンマーの伝統的な米粉麺レシピの開発済み。ベトナム現地の専門料理店と技術移転を交渉中(2022年 前半期にオープン予定)





| 第1分科

第2分科

| 第3分科 |

不登校児童生徒への「多様な学びの場」 における支援

—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京都市教育委員会）
における支援・取組 —

池田 忠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参与）

不登校児童生徒への「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支援

—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京都市教育委員会）における支援・取組 —

池田 忠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参与）

1.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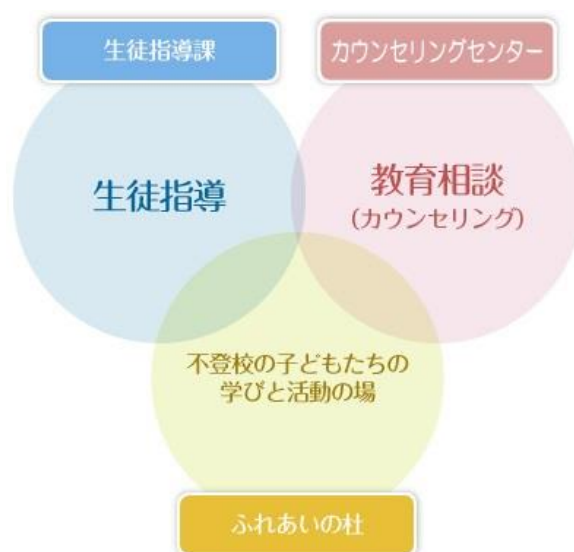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愛称：こどもパトナ）は、2003年4月に開所した総合的な教育相談機関である。こどもパトナの大きな特徴は、子どもに関する支援・相談ネットワークのセンター的機能を担うため、「教育相談（カウンセリング）」と「生徒指導」にかかる部門を集約するとともに、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活動の場である教育支援センター（適応指導教室）を一体化し、総合的な支援・相談機能を確保している。これにより、学校や他の関係機関との連携のもと、「子どもたちの心の声に耳を傾ける」教育相談的な視点に立った支援や「子どもの規範意識や道徳心、自己指導力を身に付けさせる」生徒指導の手法を融合し、多面的に子どもたちの生きる力を育むことをめざしている。

「生徒指導」を担当するセクションは、「**生徒指導課**」で、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教育に関することをはじめ、いじめ・問題行動等の対応など、子どもたちの規範意識の高揚に向けた取組や様々な健全育成に向けた事業・取組の所管を行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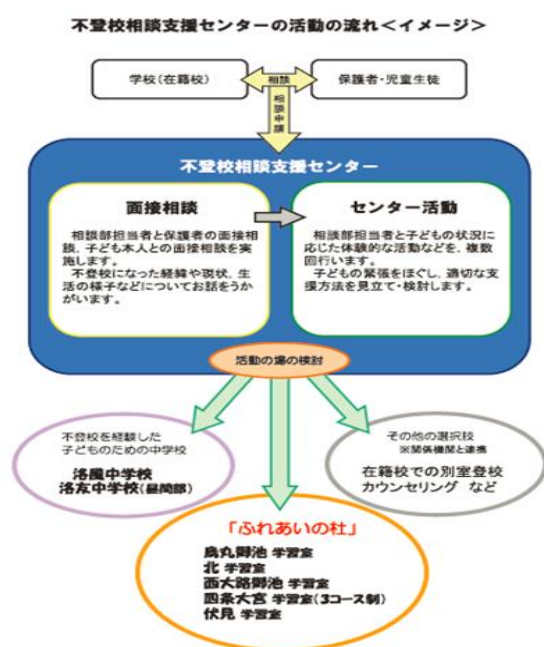
「教育相談（カウンセリング）」を担当するセクションは、「**カウンセリングセンター**」で、臨床心理士・公認心理士や教員経験者等の心理・教育の専門家が子どもや保護者へのカウンセリングや学校教職員への研修会の開催やコンサルテーションの実施、相談内容に応じた適切な専門

機関の案内、保護者啓発冊子の作成等教育相談に関する総合的な支援を展開している。

教育支援センター（適応指導教室）「ふれあいの杜」は、学校生活や家庭生活などで不安や緊張感が高く、登校したくてもできなかったり、人間関係などが原因で不登校が長期化した子どもの学びや活動の場である。子どもたちは、本来校に在籍しながら「ふれあいの杜」に通い（入級）、小集団での体験活動や学習活動を通じて、新たな人間関係を築く中で、他者との信頼関係や自らの存在感を感じ、新たな生活への意欲を高めていく。「ふれあいの杜」は、京都市内5箇所開設しており、各学習室の活動内容に特色をもたせることで、多様な子どもたちの状況に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また、一人一人の状況に応じた不登校への最も望ましい支援方法について検討する機関として、2007年1月に「不登校相談支援センター」を設置している。具体的には、「面接相談」や「センター活動（体験活動）」を通じて、子ども本人や保護者の意向を踏まえながら、「ふれあいの杜」への入級や、不登校を経験した生徒のための中学校である京都市立「洛風中学校」・「洛友中学校」（不登校特例校）への転入学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選択肢の中から、一人一人の状況に応じた最も望ましい支援方法について、学校と連携しながらすすめている。



2. コロナ禍で様々なリスクやニーズを抱えた子どもへの取組・支援

(1) SNS相談窓口の緊急開設

2018年度から、子どもの悩みを受けとめるためSNSを活用した相談窓口を開設（8月中旬～9月末・1月初旬～1月末）。2020年度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や学校の臨時休業の状況下、子どもが悩みや不安を相談できるように5月7日から緊急開設し、9月30日まで

で継続。また、冬休み明け前からの約1カ月間（2021年1月3日～1月31日）開設。

(2) 「こころとからだのアンケート」実施

長期休業明け直後は、生活環境の大きな変化により、本人の自覚のないままに精神的動揺や不安が生じやすくなることに加え、ウイルス感染への不安や学習・学校生活への不安も想定されるため、子どもたちの小さな変化を見逃すことのないように、組織的かつ継続的に対応する一環として「こころとからだのアンケート」を作成・実施。

(3) 保護者啓発資料

「子どものストレスへの理解とご家庭での心のケアについて」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よる臨時休業に伴い、普段とは違った日常生活が続く中、子どもたちの心身の健康を支えるための家庭での関わり方や保護者が悩んだ際の電話相談窓口の紹介等をまとめた啓発資料。2020年4月30日以降、全市立学校及びこどもパトナ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中。

3. 不登校を経験した子どものための2中学校

① 洛風中学校（2004年10月開校）

進路を見据えた基礎的な学力を保证するため、国語・数学・英語の基幹科目等の時間数を確保する一方で、特徴的な教育活動を展開している。

【特徴的な教育活動】

○ 創造工房➡音楽、美術、技術家庭の3教科が有機的に関わる形で学習できる題材を設定し、「見る・触る・聴く」などの感覚を使った様々な体験活動と、自身の感性を生かした「描く・つくる・歌う」など自己表現を伴う創造活動を展開。

○ 科学の時間⇄社会と理科を統合し、それぞれの教材の観点を異化し、科学的な見方・考え方の基礎を養う。

② 洛友中学校（２００７年４月開校）

様々な事情により義務教育を修了できなかった方等への教育保障を行う夜間部（二部学級）の生徒と、不登校を経験した昼間部の生徒が、世代や国籍を超えてふれあい、学び合う全国唯一の学校。

【特徴的な教育活動】

○ 合同授業⇄昼間部５・６限、夜間部１・２限
（１７：００～１７：３０，１７：３０～１８：１５）
に、昼間部の不登校生徒と夜間部の二部学級生徒がともに学ぶ合同授業を設定し、世代や国籍を超えた交流を図る。

不登校児童生徒への「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支援

-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京都市教育委員会)における支援・取組 -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参与 | 池田 忠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における支援・取組

1. 京都市教育相談総合センターについて



京都市教育委員会指導部生徒指導課
カウンセリングセンター・ふれあいの杜
万華鏡ミュージアム・京都市立洛風中学校
京都市立洛友中学校 ※不登校相談支援センター

2. コロナ禍の子どもへの緊急支援・取組について

(1) SNS相談から

相談内容： 友人関係	(26, 6%)
学業・進路	(22, 0%)
心身の健康・保健	(13, 9%)
家庭環境	(6, 6%)
コロナに関する相談	(4, 2%)

(2)「こころとからだのアンケート」

①4要因で全26の質問項目

- ☞◆ストレスの度合い (17項目)
- ◆学校生活への楽しみ (3項目)
- ◆休業期間中の家族との関係 (3項目)
- ◆休業期間中の生活の規則正しさ (3項目)

②4件法で回答

- ☞あてはまらない1点・あまりあてはまらない2点
少しあてはまる3点・あてはまる4点

2. コロナ禍の子どもへの緊急支援・取組について

(2)「こころとからだのアンケート」

③分析からの考察Ⅰ

- ☞**学校生活への楽しみ、休業期間中の家族との関係、休業期間中の生活の規則正しさの3つの要因は相互に「正の相関関係」**
- ☞例えば、学校生活に楽しさを感じている子どもは、休業期間中の家族との関係が親密な傾向にあったと言える
- ☞**ストレスの度合いは、他の3つの要因全てに対して「負の相関関係」**
- ☞学校生活を楽しみに感じ、休業期間中に家族との親密な関係があり、規則正しい生活をしていた子どもほど、ストレスが低い傾向にあったと言える

2. コロナ禍の子どもへの緊急支援・取組について

(2)「こころとからだのアンケート」

④分析からの考察Ⅱ

ストレスを抑制する強い影響項目(質問項目)

☞全校種・年代の回答

◎学校に来るのが楽しい

◎学校が休みの間、規則正しい朝食・昼食・夕食をとっていた

☞小学生の回答

○学校が休みの間、早寝・早起きをしていた

☞中学生の回答

○学校が休みの間、家の人といると気持ちが落ち着いた

☞高校生の回答

○学校が休みの間、家でしっかりと勉強していた

3. 京都市立洛風中学校・洛友中学校

①洛風中学校 地域との合同運動会・登校直後



②洛友中学校 夜間部(二部学級)生徒との合同授業

教育課程(時間割)

科目	1校時 (10:00-10:50)	2校時 (10:50-11:40)	3校時 (11:40-12:30)	4校時 (12:30-13:20)	5校時 (13:20-14:10)	6校時 (14:10-15:00)	7校時 (15:00-15:50)	8校時 (15:50-16:40)	9校時 (16:40-17:30)
月	学活	英語	国語	社会	理科	英語	国語	社会	学活
火	学活	英語	国語	社会	理科	英語	国語	社会	学活
水	学活	英語	国語	社会	理科	英語	国語	社会	学活
木	学活	英語	国語	社会	理科	英語	国語	社会	学活
金	学活	英語	国語	社会	理科	英語	国語	社会	学活

◎昼間部 ◎夜間部 ◎昼・夜間併用 ◎交流・合同





| 第1分科 |

| 第2分科 |

| 第3分科 |

COVID-19時代における進路進学相談 の変化の試み

— 生徒の閉塞感の解消、第一歩 —

李 珍 明

(貞媛女子中学校 進路進学相談部長)

新型コロナ時代における進路進学相談変化の試み

— 生徒の閉塞感の解消、第一歩 —

李 珍 明

(貞媛女子中学校 進路進学相談部長)

1. 問題意識

1) 韓国の進路進学相談教師の職務

進路進学相談教師の役割は、学校の進路進学業務を総括し、生徒と保護者に対して進路進学に関する相談と指導をする教師として、2011年3月教員資格検定令施行規則の改定に基づいて新たに導入された“進路と職業”、“創意的体験活動(進路活動)”授業などを行う教科教師とされている(教育科学技術部2010)。

進路進学相談教師は、学校教育の中で、進路開発の力量が生徒に自己主導的に養われるよう支援することが究極的な目的であり、進路教育の中心的内容であって進路教育の学習成果だと考えており、これを主体的に実行する教師と規定している(イ・ジョンボムほか2010)。

専門相談教師は、非教科教師として“相談”役を主に担う一方で、進路進学相談教師は授業と相談を並行する教科目教師という大きな違いがある。こうした特殊な進路進学相談教師の職務は、学校事務担当者と教師にとって、授業する教師という認識より生徒の進路に責任を持つ専門家という認識がより大きく作用している。

学校レベルごとの進路指導と目標は、究極の目的という面では同じ意味合いであるが、内容には違いを持っている。中でも中学生を対象とした進路指導の目的は、1つ目に意志決定をする力の習得と自己認識、2つ目に教育と進路の関連性によって教育の重要性をよりよく認識さ

せること、3つ目に社会的、経済的变化による職業認識の変化、4つ目に職務内容を学ぶことによって職業への認識を向上させること、5つ目に社会における職業の役割を認識することによって望ましい職業態度を形成することなどとしている(イ・ジョンボムほか2010)。このように、中学生の時期には、何よりも自分自身への深い理解とともに進路への具体的な模索することになるのだが、それは即ち自己の形成、興味、性格、価値観などへの理解と職業に繋がる直接的・間接的な体験など、職業に対する情報を習得し、経験を通じて進路模索が行われると見ている(イ・ジョンボムほか2010)。従って、何よりも重要で必要な進路進学相談が、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によって充実させられずにいる状況の中でどう克服することができるか悩みながら、進路進学相談の変化を試みることになった。

2) 新型コロナ時代の新しい試み

新型コロナは、2021年度が始まった時点でも依然として学校教育がまともに行えない状況となっていた。

本校は1年生110人、2年生131人、3年生が132人の計373人という小規模の女子中学校だ。小規模な学校であるために新型コロナ感染拡大の中でも教育活動を行う上ではスペース的に大きな問題はなかった。しかし正常な教育課程を行うには依然として限界があった。

各教科の授業と同様に「進路と職業」の授業もさまざまな学習方法と評価方式を使って新型コロナの状況に合わせて行おうとした。しかし、進路進学相談は、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以前とはまったく違う様相を呈し、こうした理由から生徒に直接会って相談を行うことが難しくなったため、その代案の必要性を感じた。

新型コロナ時代に合う進路進学相談の可能性を新しい相談パラダイムの変化から探求しようとした。

2. 進路進学相談の変化、第一歩

昨年は4月から新学期の授業を始めることとなり、遠隔授業に対する徹底した準備と条件を満たせない状況で学校教育課程が行われた。2学期に入って、できるかぎり授業の不足と生徒の学力低下を避けることに焦点を当てて学校教育課程を行った。こうした状況で生徒を対象に進路進学相談を行うには、教育環境が十分でなかった。いつも以上に相談が必要で重要な時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相談を十分に行うことが不可能だという思いを抱いていた。それでも生徒に近づいていく方法はないかと考えた結果、小規模学校という長所を生かして、今年は1、2、3年の全校生徒を対象に1回以上の進路相談を実施しようと計画を立てた。

全学年の学年別遠隔授業期間を使って、相談予約時間について各学年主任と教科担当教師と協議した上で日程を決めた。一般的な相談は生徒の希望と自発的な意志によっ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新型コロナという状況により相談の必要性和重要性は増加する中で、実際に生徒と保護者は相談を避けたり、必須の教育活動だと考えずに学力低下の憂慮だけが大きくなっていった。こうした現状の深刻さを感じて、全学年の生徒を対象に進路進学相談を1回以上必須としたことを知らせ、生徒は自然に相談申請

を行うこととなった。次は現在まで行われた本校の事例を簡単に紹介する。

1) 対面相談

全学年の進路進学相談を始める前に、各学年主任と協議してどの学年を優先的にするかについて話し合った。本校では1年の新入生の場合、生徒に関する情報がなく、担任教師が相談して生徒を理解するまでに時間がかかるため、1年を最初に実施し、以後に3年、そして2年の順で全学年を行うことにした。

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前のように登校授業が行われる期間に、進路進学相談室で対面相談を行った。

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によって乱れていく世界の中で、自分の未来への希望をつかみたいと願う生徒たちが、登校期間を待って相談を申請してきた。相談実施前に感染防止ルールを順守し、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を守りながら進路進学相談室で実施された。

2) オンライン対面相談

遠隔授業期間にオンライン(リアルタイム動画活用)によって対面相談を行った。

対面相談は、登校期間にのみ可能なため、全ての生徒を対象に実施するのは不可能だった。これを解決しようと、生徒に対面相談、オンライン対面相談、非対面相談の中から選ばせて、学年ごとに相談日程を調整しながら実施した。

1学期に行われた1年生と3年生の相談とは、進路進学相談室で行う対面相談ではないが、オンライン動画(ZOOMによるリアルタイム相談)を通じて時間の制約やスペース(新型コロナから安全なスペース)の制約を受けずに実施でき、生徒に対面相談よりも好まれていた。しかし、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が長期化して2学期が始まった2年生の場合は、オンライン非対面相談よりも対面相談を好む生徒が増えていた。

3) 非対面相談

対面相談、オンライン対面相談を嫌がる生徒のための相談方法として、電話相談、進路進学相談チャンネル、遠隔授業プラットフォームチャンネル、メールなどを通じて非対面相談を申請するように案内した。非対面相談を好む生徒たちは、1回の進路進学相談を必須にしなかったら、相談から疎外されやすい生徒群であった。家庭の教育環境が不安定だったり、1人親家庭、配慮が必要な生徒、またはこうしたカテゴリーに入れないグレーゾーンの生徒は、相談の自発的な参加や積極的な意志を持っていない生徒が多い。

専門相談教師(専門相談士)が学校に配置され、Wee Class を通じた相談は可能だが、専門相談教師が全学年を対象として心理相談を行うには様々な制約がある。その一つは、専門相談教師に相談する生徒を問題を持っている生徒だと思われるがちであるからだ。しかし、専門相談教師の相談とは違い、進路進学相談教師の相談は、問題がある生徒というよりも、学習や進路および進学に関して相談の希望がある、ポジティブなイメージと思われていたため、全学年に対して進路進学相談するのに、困難に遭遇したことはなかった。

3. 生徒たちの閉塞&解消の結果

教育部指針による中学校の義務授業日数は、190日以上である。本校は1学期が95日、2学期が95日で総授業日数を調整していた。しかし、2021年度本校の1学期の学年別登校日数は、1年55日(57.9%)、2年57日(60%)、3年58日(61.1%)となり、残りの授業日数は遠隔授業で行われた。

本校は小規模な中学校で1学期の始まりから3分の2が登校する教育課程を行っ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登校授業日数は95日に比べてかなり少ない日数となった。このように教育活動が正常に行われない中、全校生の進路進学相談を

通じて、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によって息詰まっていた子どもたちの閉塞感が解消され始めた。新型コロナで崩壊しつつあった世界の中で、自分の夢も未来への思いも全てに希望が持てず、実現し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絶望感から、少しずつ前を向き始める様子が見え始めた。夢に向かって少しずつ笑顔を取り戻しつつある子どもたちの姿を見守りながら、変わっていく保護者たちの反応、クラス担任としてよく理解できていなかった子どもたちの情報共有を通じて、教師仲間との親密感や連帯感などが高まっていた。業務量が増え、肉体的・精神的な疲労の蓄積は避けられなかったものの、29年間在職した学校において初任教師の時に感じたやりがいや喜び、幸せ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

1) 対面相談

登校期間に進路進学相談室に来る生徒たちには、マスクの奥から明るい笑顔が見えた。新型コロナによって自分の話を聞いてくれる人と会えない生徒は、思うようにぶちまけられないでいた本音を表に出し始めた。自己主導学習、学習戦略、進路と学習のために必要なことなど、学習と関連して自分の進学におけるさまざまな考えや気になる点を思い切り吐き出し始めた。このように対面相談を申請してきた生徒の多くは、自己肯定感が高く、ポジティブで積極的な進路設計を自分から主導的にしようとする生徒が多い。こうした生徒には閉塞感の解消の時間となり、応援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時間となった。

2) オンライン対面相談

登校期間ではない遠隔授業期間を活用するオンライン対面相談が行われた。全学年の全校生と対面相談するのは困難なため、遠隔授業期間中に、時間的、スペース的制約がないこと、安全であることなどの理由から、これらを好む生徒が申請してきた。

新型コロナにより長期間にわたり遠隔授業が行われ、映像による対面に慣れた生徒はオンライン対面相談を、まるで実際の相談室にいるように考えていた。

オンライン対面相談では、生徒の学習時間、形態、戦略、その成果に関して自然な形で話し合えるようになり、こうしたリアルタイム動画による相談は、家族の事情をより深く理解するに役立っていた。例えば、動画で相談が行われる間に‘家庭内の学習環境’（両親、兄弟などの対話、内容、学習スペースの共有など、授業外の相談時間で生徒と気楽で自由に話し合える）と‘学校内の学習環境’（学習を支援する対象の有無、遠隔授業を効率的に行える環境、その他）など、生徒を理解する上で効率的な側面があることも分かった。

対面相談では、簡単に把握しにくい生徒の教育環境や生徒をめぐる状況全般を自然に把握し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

3) 非対面相談

一般的な相談や進路進学相談をすべて拒否したり、必要性を感じず、特に対面相談に関する拒否感や恐れを抱いている生徒、自分の考えを相手に伝えることが得意でない生徒などに対して比較的気軽に相談を受ける環境となっていた。大部分の生徒は、電話で相談を行い、少数の生徒は進路進学相談チャンネル、遠隔授業プラットフォームのチャット(Bandチャット)などの生徒が希望する非対面方式の相談を実施し、生徒たちが時間や空間の制約、プレッシャーを感じずに相談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

非対面相談の長所は、こうして対面相談では話しにくいこと(異性交際、交友関係、いじめ、憂鬱感など)について相談の要望が多かった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相談が寄せられた場合、校長、専門相談教師などを含む協議体を構成し、どうアプローチすべきか、問題への対策などに

ついて協議を行い、迅速な対応を心かけ、生徒の問題行動を未然に防ぐことを目指している。

生徒たちは専門相談教師とは異なり進路進学相談教師への相談に拒否感を持っていなかった。それは進路進学相談教師との相談を、荷に感じたり深刻に考えず、進路や進学に関して話し合える時間、必要な支援が得られるものと見なされ、多くの相談が寄せられていた。生徒たちへの信頼感を保ちつつ、専門相談教師と担任との協力、引いては保護者との相談にも生徒の立場を考慮した慎重な相談を行い、生徒のさまざまな問題を一緒に悩んで解決しようと取り組んでいる。

4. 考察

1) 新型コロナ時代の完全なる集中

相談とは、相談に来た生徒との距離を縮める過程であるが、新型コロナなどが原因となり、生徒たちの心を読み取るのは簡単ではない。学校ではさらに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が当然視され、生徒との親密な関係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かった。こうした時期に進路進学相談は、ほぼ不可能だと感じるだろう。しかし“危機はチャンス”だ。生徒たちの行動と言葉に隠れた意味を見つけるための完全なる集中が必要である。登校授業と遠隔授業による生徒との出会い、そして対面相談、非対面相談による生徒との出会いがようやく実現された。

新型コロナ時代に、どんなアプローチが生徒にとって効果的な教育活動となるか悩むことも大切であろう。しかし、アプローチ方式よりも重要なのは、生徒にどれだけ集中して心を読み取っているかに関するものであり、今がその時だと思われる。絶えず他人と比べられて競争する中で、自分の人生に満足できず、深刻な憂うつ感とストレスに苛まれている生徒たち、我々の基準で性急に生徒たちを判断して非難せず、心のこもった関心から集中があれば、この時にも進路進学相談は十分

に可能であり、これこそ、我々の生徒を成長させる教育活動になると思われる。

2) 生徒たちの心を開かせる教師の激励

心理学者アルフレッド・アドラーによれば、すべての心理的な問題行動は病理的な原因から起こるのではなく、落胆(discouragement)した結果だとしている。つまり、生徒を指導したり相談を受ける際、問題行動の原因を究明して原因を取り除こうとするより、激励(encouragement)によって落胆から抜け出すようにすれば、問題行動も消え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イ・ヘジュンほか、2020)。多くの教師は、生徒たちの問題行動を指導したり、相談を受ける際に生徒の行動についてこまごまと説教しようとしたり、その原因を捜し出して注意しようとする態度を取りやすい。

学校は生徒たちの成長を支持して支援する場所であり、休まる暇のない競争の場になることもある。こうした理由から、学校は生徒を簡単に落胆させることもある。今日、多くの生徒た

ちは落胆して挫折を経験している。こんな現実の中で生徒が競争の世界で敗者ではなく勝者になるよう保護者と教師が助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は失敗も許される環境、完全ではない自分自身を素直に認めて受け入れられる学校にならねばならない。こうした学校になるためには、最も重要なのが“生徒への激励”である。激励によって生徒たちは自分の価値を発見して尊重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激励は比較対象とするのではなく、生徒自身が今まで行ってきた努力や改善された点に焦点を置くことである。生徒の努力に気づいてやることである。他人を見て比較し、苦悩する生徒には、教師が生徒の日々の努力(結果に関する評価ではない)を気づき、それらを認める言葉や行動で反応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新型コロナで、閉塞している生徒を理解し尊重し合う気持ちに接すれば、彼らの閉塞感も解消するだろう。

落胆した生徒を褒めたたえる教師の激励が、今の学校現場で求めら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

参考文献

- 教育科学技術部 (2010). 「進路進学相談教師能力開発」, ソウル: 教育科学技術部の進路進学相談教師の資格研修教材
- イ・ゾンボム、チェ・ドンソン、ゴ・ジェソン、イ・ヘスク (2010). 「進路進学相談教師の養成のための標準教育課程の開発研究」, ソウル: 教育科学技術部。
- イム・ヒョシン、ジョン・チョルヨン (2015). 「中学生の進路開発能力検査道具の開発」, 進路教育研究, 28 (4), 107-137.
- イ・ジョン、ジョン・ユンギョン、イ・ゾンボム (2010). 「創意的な人材育成に向けた進路教育の活性化方策」, ソウル: 韓国職業能力開発院。
- イ・ヘジュン、キム・ジョンヒ、キム・ソンヒ、キム・ソンウ、チョ・ヘジン、カン・ジヨン、オ・イクス (2020). 「励ます先生」, ソウル: ハクジサ。

COVID-19時代における進路進学相談の変化の試み

- 生徒の閉塞感の解消 第一歩 -

貞媛女子中学校 進路進学相談部長 | 李珍明

Ⅰ. 問題意識(新型コロナ時代の相談)

進路進学相談教師の職務

進路と職業 授業 (10時間以内)

進路・進学・相談 (8時間以上)

学習者中心の授業
(教科との連携、統合、融合など)

自己主導学習

自己主導的 進路・進学情報の模索

未来の進路設計

Ⅱ．進路進学相談の変化、第一歩

STEP1:
対面相談

STEP2:
オンライン対面相談

STEP3:
非対面相談

登校授業機関を使った
対面相談



進路・進学の実索
設計の積極的な相談

원격 수업 기간
사전 예약 상담



オンライン映像による対
面相談
時間・空間の制約がない

원격 수업 기간
(전화, 상담채널, 등)



電話相談やチャット相談
対面相談の重圧が減少

全校生徒が1回以上の進路・進学相談を必ず受けるよう案内し
相談を実施 (誰でもプロジェクト)

Ⅲ．生徒の閉塞感 & 解消の結果

中学校の総授業日数は190日以上:1学期 95日、2学期 95日
1学期の登校授業: 1年 55日(57.9%)、2年 57日(60%)、3年 58日(61.1%)



対面相談

自己主導学習
戦略作り、生徒みず
から実践して学習力
量の強化と積極的な
進路設計とその可能
性を発見する



オンライン対面相談

自己主導学習にじ
やまとなる具体的
要因を模索し、解
決方法をみずから
探して挑戦、プ
ラスの経験を得る機
会を提供



非対面相談

自分自身の理解と
尊重、自己肯定感
の回復、みずから
を大切な存在と認
識しプラス思考に
変わる

Ⅳ. 考察

生徒の言葉と行動に隠
された意味を見つける
ためだけに

集中



Ⅳ. 考察



生徒の閉塞感の解消！
落胆した生徒を立ち上が
らせて成長していく力

激励





| 第1分科

| 第2分科

| 第3分科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 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

— コロナ禍における不登校・引きこもりへのアウトリーチ支援 —

谷口仁史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ステ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代表理事)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 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

— コロナ禍における不登校・引きこもりへのアウトリーチ支援 —

谷口 仁史

(認定NPO法人スチ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代表理事)

1. 都道府県単位で全国初の設置となった「佐賀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

2010年4月6日、佐賀県は「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注)」第19条第1項に基づき、都道府県単位では全国初となる「佐賀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県こども未来課)」を発足させた。本協議会が重視したのは、ひきこもりやニート等、社会生活を円滑に営む上での困難を抱える子ども・若者に対するワンストップの相談サービスの実現であり、既存の縦割りの対応の打破であった。そこで、アウトリーチからの切れ目のない連続的な支援をより効果的に促進するため、条文上は異なる位置づけとなる「県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法第13条)」及び「指定支援機関(法第22条)」に関して、子ども・若者の自立支援に関して高い専門性と実績を有する「認定NPO法人スチ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以下、S.S.F.と略記。)」に委託を行った他、その相談拠点を若年無業者等の職業的自立を支援する「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事業(厚労省)」における総合相談窓口「さが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S.S.F.受託・運営)」に併設することで、一体的な運営を可能とした。また、本法が推進する地域ネットワークづくりという観点からは、2006年に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事業において分野横断的な構成機関が参画する「佐賀県若者就

労支援ネットワーク(旧雇用対策課)」が設置・運用されていたことから、これに屋上屋を架すわけではなく、拡充する形で発展的に継承し、教育や就労、福祉、医療、更生保護など関係分野の上部組織を中心に22機関・団体を構成機関とし、県全域を網羅する専門的かつ総合的な支援体制が構築されることとなった。

2. 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に即した「ワンストップ」相談サービスの提供

このように、佐賀県における取組において、「ワンストップ型」が強く意識された理由は、主たる支援対象となる子ども・若者の「実態」にある。「さが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以下、「佐賀サポステ」と略記。)」が求められた役割は、先行して開設されていたジョブカフェ等既存の就職支援窓口では把握が難しい支援対象者層へのアプローチであり、具体的には、「ひきこもり」等社会的に孤立する若年無業者等を対象とした職業的な自立支援であった。言うまでもないが、相談に「来ること」を待つ「施設型」支援の延長上では、佐賀サポステが求められる社会的役割は果たせない。そこで機能したのが、S.S.F.が設立以来、基幹事業に位置づけ積極的に展開してきた「アウトリーチ(訪問支援)」である。当時、佐賀サポステの利用登録者の約4割が自宅等へのアウトリーチ対象者であったことがその証左と言えるが、孤

立する若年無業者等の支援への効果的な誘導が実現し、全国トップクラスの実績に貢献した。このアウトリーチを基軸とした佐賀サポステにおける取組が、本法に基づく取り組みを進める上で配慮すべき子ども・若者の「実態」を明らかとした。

2009年度アウトリーチ対象者のうち、不登校や非行等在学中に何らかの不適応経験を有している者は97.2%と高く、無業状態に陥ったきっかけとして最も割合が高かったのが「対人関係上の問題」で88.1%、いじめやパワハラ等の被害経験を有する者も52.8%に上った。ひきこもるなどして社会的に孤立する過程で、課題は深刻化・複合化する傾向が認められた。約5割の当事者で精神疾患が認められ、ゲーム障害等依存行動が47.7%、自殺願望や自傷行為が認められる者も27.3%に及んだ。働きかけ等を通じて保護者と本人との関係性が悪化しているケースが59.1%、家庭内暴力が発生したケースも40.3%に及んだ。他方、孤立が長期化した背景に目を向けると、相談窓口側の課題も浮かび上がる。過去にカウンセリング等の相談窓口の利用経験を有している者は76.7%で、63.1%の当事者は、複数の専門家、あるいは相談窓口の利用を経験している。つまり、多くの子ども・若者がSOSの声を上げているにも関わらず、相談窓口側が適切に受け止めきれていない実態が明らかとなったのだ。従って、本協議会の設置に当たっては、当事者が抱く「相談」「支援」に対する不信感や拒絶感（61.4%）、スティグマを前提に、アウトリーチから社会参加・職業的自立に至るまで、責任を持って見届けられる体制づくりが主眼に置かれることとなった。

3. 深刻化・複合化した課題を抱え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

このような方針の下、本法に基づく県内唯一の指定支援機関であるS.S.F.が「ハブ機能」を果たすことにより、佐賀県の子ども・若者自立支援体制は年々発展を遂げている。2013年度からは、生

活困窮者自立支援法に基づく相談窓口「生活自立支援センター（佐賀市）」、2016年度からは、佐賀県警少年サポートセンターと併設され困難を抱える青少年の支援拠点となる佐賀市青少年センター「子ども・若者支援室（佐賀市）」、2017年度からは、県全域全年齢対象の「ひきこもり」に関する第一次相談窓口である「佐賀県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県障害福祉課）」が新たに併設されるなど、「ワンストップ」型の機能が強化されている。この「統合型」支援拠点における年7万9千件超（2020年度）の相談活動において、どのような実態が明らかとなったのだろうか、次に佐賀県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において実施した約2,400名を対象とした実態調査を紹介したい。

相談者の紹介元の約7割が行政機関及び専門機関であることに示唆されるように、佐賀県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が受け付ける相談は、従来型の相談窓口では対応が困難な深刻化・複合化した課題を抱えるケースが中心となっている。84.2%が学校や社会生活を営む上で支障となる対人関係上の課題を抱えていた他、特段の配慮を要する精神疾患（疑い含む）が44.2%、発達障害（疑い含む）が43.7%に上り、ゲーム障害を含む依存行動が認められた者も28.7%のケースで認められた。他方、貧困、虐待、DV、保護者の精神疾患、アルコールやギャンブル依存等、成育環境に困難を抱えている者も63.6%に上っており、これらの困難が幾重にも折り重なっている、多重困難家庭も全体の85.2%を占めていたことから、従来型のカウンセリングベースの本人支援のみでは解決が困難な状況にあることが分かる。

4. S.S.F.が行政との「協働」で実現している深刻化・複合化した課題への5つの対策

概ね5年間の政府の子供・若者育成支援の基本的な方針・施策等を示すため、2021年4月に策定された『第3次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において、社会全体の状況について、小中高生の自殺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や虐待による死

亡事件、ひきこもり問題の深刻化等を踏まえ、「生命・安全の危機」、「孤独・孤立の顕在化」を掲げているように、社会的孤立に係る問題は深刻な状況にあり、コロナ禍でそのすそ野が広がり、悪化のスピードが増したと言って過言ではない。S.S.F. がコロナ禍で受けた様々な制約の中、受託・運営する総合相談窓口における相談実績が過去最高を更新した背景には、現場の実情に応じて講じられていた対策の効果がある。

第1にS.S.F. が構築している多職種連携を前提とした組織体制が挙げられる。従来型の相談窓口は、施策毎に特定の有資格者が推奨され独占する形を採る事も少なくなかった。しかしながら前述の実態調査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子ども・若者の課題は深刻化・複合化しているのだ。アセスメントの段階で偏りが出てしまえば、支援の失敗につながり、後のフォローも難しくなる。このため、S.S.F. では、「統合型」支援拠点のメリットを最大限に活用することで、多職種連携を前提とした窓口運営を行っている。現在、教育、医療、福祉、労働、司法等関連分野の29種の有資格者が所属する他、「シフト制」を採用し各事業の枠組を超えた日常的な異動を可能とすることで、相談者、一人ひとりの特性に応じた柔軟なチーム構成が行えるよう工夫を重ねている。また、価値観が多様化し急激に変化を遂げる時代を鑑み、関係性の構築に当たって有効な世代的条件も加味したマッチングを行えるよう、20代～70代までの各世代の支援員を雇用し、大学、行政との「協働型」の人材育成システムを連動させることで、「お兄さん」「お姉さん」的存在として、受け入れられ易い大学生ボランティアを含む多様な世代の人材が支援に関与できる体制を整えている。

第2に、重層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の構成にある。S.S.F. は設立以来、社会的に「必要なものは『協働』で創り出す」という方針を堅持し、年々、その支援ネットワークを拡充してきた。700団体以上の協力を得て創設した情報ネットワーク「青少年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in SAGA」、職業的自

立に向けた啓発活動を実施する150種の職業人のネットワーク「若者の味方隊」、就労体験や就労訓練等の受け皿となる県内190ヶ所を超える事業主のネットワーク「職親」を始めとする地域レベルから、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策定に係る社会保障審議会委員を中心とした理事会が率いる「生活困窮者自立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全国各地のアウトリーチ実践団体が集う「日本アウトリーチ協会」、医療分野のアウトリーチ実践者との協働で創設した「コミュニティメンタルヘルスアウトリーチ協会」等、全国レベルのネットワークに至るまで、目的別・機能別に27を超える重層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を構成している。このように、全国規模の連携協力体制の下で本事業を実施することで、県境を越えた社会資源の活用等が可能になり、従来の枠組みの限界を補うこともできる。

第3に法制度に基づく各種計画等の統合化の取組は佐賀県の特長と言える。本法に基づく協議会を始め、近年、策定される法制度に基づく施策には、課題解決のための連携強化、縦割りを突破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協議会等の会議体が設置されている。その一方で、人員や予算の拡充のスピードが追い付いていないため、会議体が乱立することで、会議に拘束される頻度や時間が増大し、相談活動の時間が削られ、負担が重くなる事態が一部で生じている。また、「孤独・孤立」といったテーマではいずれの協議会等にも共通する課題であるにも関わらず、協議会等の連携が想定されていないため、策定される計画等も上滑りで実効性に欠けるといった事態も発生していた。従って、本法に基づいて策定が求められている「子ども・若者計画」は、佐賀県次世代育成支援地域行動計画、佐賀県子ども・子育て支援事業支援計画、佐賀県母子保健計画、佐賀県ひとり親家庭等自立促進計画、佐賀県子どもの貧困対策推進計画と一体のものとして策定されており、分野横断的かつ協同一致した取組が推進されている。また、法制度に基づき設置されている各協議会等に関してもその多くでS.S.F. が共通の構成機関として位置づ

けられたことで、県レベルでは、本法に基づく佐賀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県こども未来課）、佐賀県ひきこもり対策連絡協議会（県障害福祉課委託）、佐賀県生活困窮者自立支援連絡会議（県福祉課）、佐賀県就職氷河期世代活躍支援プラットフォーム（佐賀労働局）において、合同での研修会やケース検討会議等が実行可能となっている。

第4に、縦割り行政の中で発生している煩雑な申請書類や相談記録システムの統合化に関する取組が挙げられる。基本的に行政が実施する相談サービスは、申請主義であり、縦割り行政の中で専門分化した現状においては、各々に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申込書や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関する同意書等が必要となる。S.S.F.が受託・運営する16事業に関しても例外ではない。深刻化・複合化した課題を抱える子ども・若者に関しては、世帯ベースで見ると複数の相談支援事業の利用が必要となり、場合によっては数十枚の申請書等の提出が必要になる。これがハードルとなり、利用率の伸び悩みや支援の中途段階での離脱、事務負担の増大等の要因になっていた。そこで、S.S.F.が受託・運営する16の相談支援事業の利用申込書及び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関する同意書に関しては、国や県、市、関係各課との1年半に及ぶ交渉によって、統合化することで一致し、1枚の利用申込書兼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関する同意書を提出するだけで、フリーパスで関連事業の相談サービスが受けられる、全国初の「一括同意方式」の導入が実現している。また、相談記録システムに関しても縦割り行政の中での発注で開発が行われるため、同じ厚労省内の関連事業ですら互換性が全くないシステムを使用しており、膨大かつ無駄な事務作業が発生していた。そこで、S.S.F.が独自に電子カルテシステムシェアNo. 1の株式会社レスコと協定を締結し、3省2ガイドラインに準拠したセキュリティを担保する全国初の「統合型」の相談記録システムの開発を行っており、行政では制度上、実現が難しかった子ども・若者支援領域における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よる

シナジー効果の最大化の実現を図っている。

第5に事業評価システムの改革に関する取組が挙げられる。現行の事業評価の仕組みは、縦割り行政の中で策定されているため、課題や年齢等の制約に基づくものが多い。特に子ども・若者支援領域においては、状態像や所属する家庭環境の状況等を一切加味しない「進学率」、「就職率」等従来型の「単純化」された評価方法の弊害は大きい。実績が重視されるプロポーザル等で競争原理が働いた場合、深刻化・複合化した課題を抱える子ども・若者は、「たらい回し」にされたり、支援の対象から除外されるなど、いわゆる「クリームスキミング」を助長しており、本末転倒な結果を招いてしまっている。

従来型の公的支援では対応が困難な状態にある子ども・若者を対象としてきたS.S.F.では、こういった課題認識から、膨大な支援実践と多角的な検証により、多軸評価アセスメント指標「Five Different Positions」を開発するなど、事業評価の仕組みに関しても具体的な提案を行ってきた。9割の改善実績を持つS.S.F.の家庭教師方式のアウトリーチに対する教職員のニーズは極めて高く、2006年度完全不登校児童生徒を対象としたオンライン学習支援と訪問支援のハイブリッド支援である「IT活用支援事業(佐賀市学校教育課)」が創設された他、その実績の高さから常勤スタッフによるアウトリーチ事業「不登校児童生徒訪問支援業務(佐賀市学校教育課)」、22名の常勤職員の学校配置及びICTを活用した自立支援事業として拡充された「不登校児童生徒支援業務(佐賀市学校教育課)」へと発展を遂げ、2016年度からは、全小中高約300校を網羅する全国初の包括的訪問支援事業「訪問支援による社会的自立（学校復帰）サポート事業（県学校教育課）」の受託につながっている。一貫しているのは、多角的検証を伴う事業評価で、Five Different Positionsによる対人関係、メンタルヘルス、ストレス耐性、思考（認知）、環境のレベルデータの改善率に加え、学校復帰に向けた5段階の行動改善率、不登校の状態（13段階）における改善率など受託側、委託側双方による事業評価を行うことで、

年々その取り組みを発展させている。

このように、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に即した佐賀県における行政とS.S.F.との協働による包括的かつ総合的な取り組みは、子ども・若者の職業的自立等短期的な成果を上げるだけでなく、社会的な結果にもつながっている。全国的には若年無業者数が増加あるいは高止まりする都道府県が少なくない中、佐賀県においては、一貫して減少傾向にあり、総務省調査では4,900名（2007年）から3,100名（2017年）にまで減少している他、世代の中で無業状態に陥る者の割合も低減しおり、改善率は、全国トップクラスとなっている。

5. 第3次「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が示す覚悟とS.S.F.の活動の今後

不登校、ひきこもり、非行、ニート等、学校や社会との「つながり」を失い、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増加…。ひきこもりの長期化などにより、親子共に高齢化し、支援につながらないまま孤立する「8050問題」も深刻化しており、親の死後においても、子が誰にも頼ることなく餓死や病死する、いわゆる「ひきこもり死」の問題が顕在化している。一方、安全地帯であるはずの家庭においても、児童虐待件数は、過去最高を更新しており、貧困、DV、保護者の精神疾患等、複合化した課題を抱える家庭も少なくない。「助けて」と声を上げること自体が容易ではない日本社会においてコロナ禍で深刻化した「社会的孤立」に係る問題…。

コロナ禍で策定された『第3次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においては、孤独・孤立対策、

自殺、虐待、貧困等への対策、複合的な包括的支援、SNS相談やアウトリーチの充実など、政府の基本的な方針・施策が示されており、その方向性は、現状を的確に捉えた急務の課題であり、担い手の育成で新たに示された「各地の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や、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の全国ネットワーク化」による地域を超えた担い手の共助に象徴されるように、オンライン研修や会議、広域連携により、従来の枠組を超えたボーダレスな発展が期待できる。また、「誰ひとり取り残さず、非常時にも途切れることなく支援」と明示された政府の真摯な姿勢、そして、子供・若者インデックスボードの作成による総合的・多面的評価の充実等、施策の推進に係る覚悟は、過去の大綱と比べても十分に踏み込んだものと言え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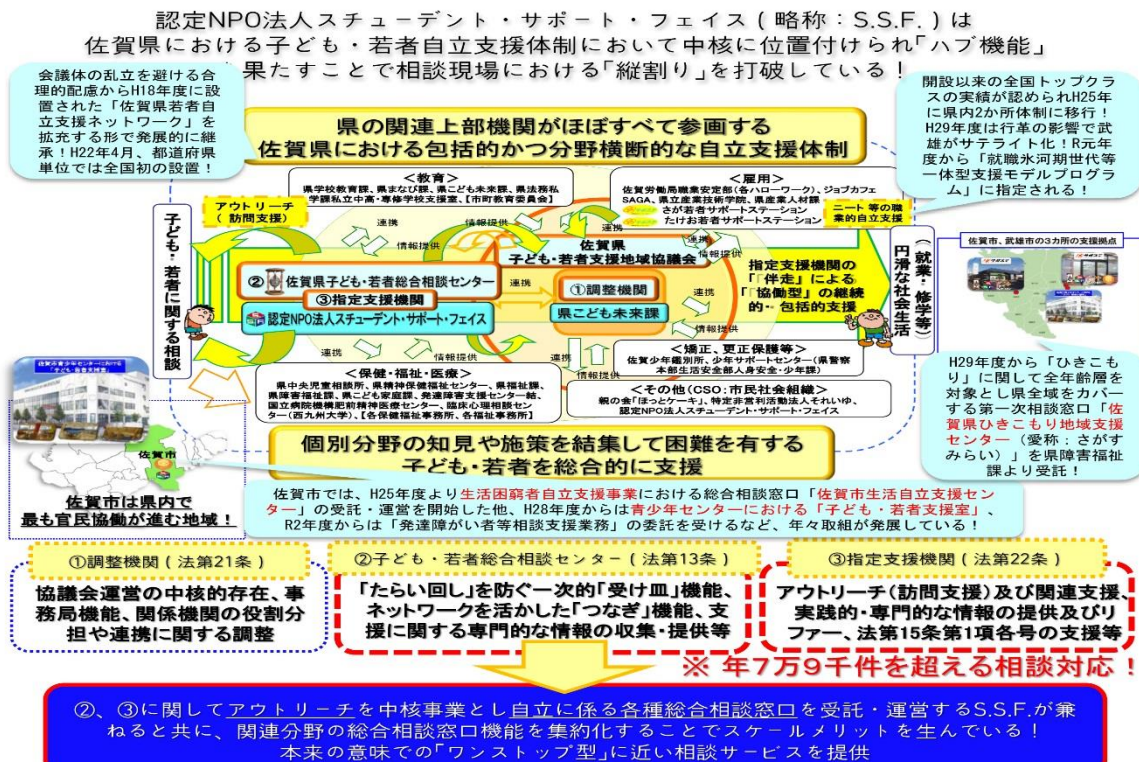
筆者もこの大綱づくりに係る「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のための有識者会議（内閣府）」において構成員を務めた責任、そして現場を預かる一相談員として、政府が大綱で示す、その真摯な姿勢、そして覚悟に倣い、「どんな境遇の子ども・若者も見捨てない！」社会的孤立・排除を生まない支援体制の確立に向け、佐賀県における「協働型」、「創造型」の取組をなお一層、推進強化する。

※ 注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は、教育、福祉、雇用等の関連分野における子ども・若者育成支援施策の総合的推進と、ニートやひきこもり等困難を抱える若者への支援を行うための地域ネットワークづくりの推進を図ることの二つを主な目的としている。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 ～コロナ禍における不登校・引きこもりへのアウトリーチ支援～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スチューデント・サポート・フェイス代表理事 | 谷口仁史

社会的に孤立する子ども・若者の実態とコロナ禍での相談実践 ～コロナ禍における不登校・引きこもりへのアウトリーチ支援～



佐賀県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における実態調査

＜対象者年齢別内訳＞

0～9歳	10～19歳	20～29歳	30歳以上	不詳	合計
123	1,339	573	327	36	2,398

※H22.4～H29.3新規対象者合計

＜実態調査対象者＞

H22～H28年度「佐賀県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利用者2,398名

※割合には十分な情報が得られなかった者167名を除き算出

H22年度～H28年度	項目	あり	割合
配慮すべき疾患 および障害	1 精神疾患(疑い含む)	986	44.2%
	2 発達障害(疑い含む)	975	43.7%
	3 暴力	404	18.1%
行動面の問題	4 非行・違法犯罪行為	253	11.3%
	5 依存(携帯、インターネット、ゲーム、異性等)	640	28.7%
支援経験	6 医療機関受診	785	35.2%
支援機関を利用するに あたっての困難	7 多重の問題	1,890	84.7%
	8 対人関係の問題	1,879	84.2%
	9 家族問題(家族の精神疾患、DV、ギャンブル依存等)	1,421	63.7%
家庭環境	10 虐待(疑い、過去の経験含む)	308	13.8%
	11 被支援困難者 (経済的事由で必要な支援が受けられない)	424	19.0%
対象者実数		2,231名	

支援の際留意すべき点

84.2%を超える子ども・若者が対人関係に問題を抱えている

28.7%の子ども・若者がゲーム障害等何かしらの依存行動が認められる

4割を超えるケースで精神疾患、発達障害等特段の配慮を必要とする

虐待、DV、保護者の精神疾患、ギャンブル依存、貧困等生育環境の問題

63.7%で家族自身も悩みを抱え疲弊するなどして支援を必要としている

多重に困難を抱える子ども・若者が84.7%と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

従来型のカウンセリングによる本人支援のみでは効果が見込めないケースも多い

多重に困難を抱える子ども・若者の支援には「環境」に対するアプローチも重要

従来型の取組の限界を真摯に受け止め

実態に即した組織体制を整えることが極めて重要

～S.S.F.が「官民協働」で実現している従来の枠組を超えた分野横断的な組織づく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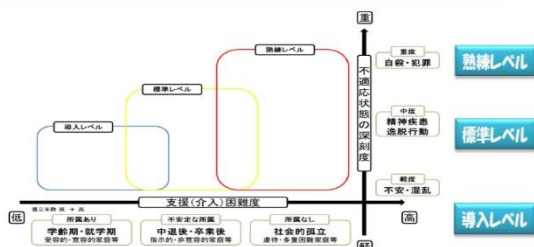
①経験と実績を有する複数分野の専門職によるチーム対応



【登録スタッフの保有資格】臨床心理士、公認心理師、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社会福祉士、精神保健福祉士、産業カウンセラー、学校心理士、小学校教諭、中学校教諭、高等学校教諭、特設支援学校教諭、幼稚園教諭、保育士、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ニング技術士、理学療法士、サービス管理責任者、SSF支援コーディネーター、職業訓練指導員免許、心理相談員、薬剤師、医師、看護師、LD教育士等
【年齢】20代～70代の各世代を雇用：関係性の重視と世代間の連携 ※必ずしも常勤職員の保有資格

※29種の有資格者がS.S.F.を構成している

③相談者の状態及び所属する環境の状況を加味したレベル分け



※戦略的な人材養成システムが運動

②「シフト制」の採用による相談者との多様な組み合わせ



個別担当者制とチーム対応の併用：「より多く」の若者に「より深く」関与することが可能

※関連分野の窓口を統合的に運営することで実現

④支援介入困難度に応じた役割分担と世代的条件等も加味した関係性の重視



※価値観のギャップが生じにくい世代による支援

「価値観のチャンネルを合わせる！」徹底した危機管理の下、関係性を重視した「お兄さん」「お姉さん」的支援員（ナナメの関係性）を積極的に活用！個々人の状態、特性に応じて、専門性だけでなく世代的条件も加味した相談者とのマッチングを可能としている！

S.S.F.では従来の枠組を超えた支援を可能とするため目的別に地域レベルから全国規模に至るまで27を超える重層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を構成



「子ども達の笑顔のために！」根拠的・目的の共有による緩やかな連携から発展的に構築！S.S.F.を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県内外1,000団体以上の協力を得て支援活動を展開！



各協議会に参画するS.S.F.が「ハブ機能」を果たすことで従来の枠組を超える形で合同のケース会議や研修会等の開催が可能に！

①多軸評価アセスメント指標「Five Different Positions」

- 〇対人関係〇**
 - Level1 対人恐怖を抱え、他者への警戒心、拒絶感が強く接触が全くなされない状態にある。
 - Level2 他者への警戒心、拒絶感が強い状態であるが、特定の人間であれば接触が可能である。
 - Level3 個別での対人接触は可能であるが、強い苦手意識があ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不平等である。
 - Level4 小集団での対人接触が可能で、一定の枠組の下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可能である。
 - Level5 集団での対人接触が可能で、日常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ができる。
- 〇メンタル〇**
 - Level1 精神疾患を有する状態で、重度の幻覚・妄想や自殺企図があり、自傷他害のリスクが高い。
 - Level2 精神疾患を有する状態で、投薬等によって症状が抑えられているが自傷他害のリスクがある。
 - Level3 精神疾患もしくは境界領域で、ある程度の自制が可能で条件次第で限定的に社会参加ができる。
 - Level4 精神的に不安定であるものの、助言等によって自制可能な状態で一般的な社会参加が可能である。
 - Level5 精神的に安定しており、社会生活を営む上での支障がない。
- 〇ストレス〇**
 - Level1 ストレス耐性が脆弱で、些細なストレスでも心身に影響が生じるため、社会生活が送れない。
 - Level2 ストレス耐性が弱く、しばしば心身への影響が認められ、社会生活を営む上で困難がある。
 - Level3 ストレス耐性は中程度で、一定のストレスが溜まることで時折、社会生活に支障が出ている。
 - Level4 ストレス耐性が比較的高く、助言等があれば自制が可能で、一般的な社会生活が送れる。
 - Level5 ストレス耐性が高く、自制が可能で社会生活を営む上で支障がない。
- 〇思考〇**
 - Level1 全てにおいて悲観的・否定的な考え方で、客観的な意見を受け入れられず自制もできない。
 - Level2 悲観的・否定的な思考で、自制はできないが時に客観的な意見を受容することができる。
 - Level3 悲観的・否定的な思考傾向にあるが、助言等を受け入れ、ある程度の自制が可能となる状態にある。
 - Level4 一般的な思考傾向にあり、助言等によって物事を合理的に考え、自制可能な状態にある。
 - Level5 一般的な思考傾向にあり、自ら物事を柔軟に捉えたり、合理的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
- 〇環境〇**
 - Level1 虐待・DV、不法行為等の深刻な問題が存在し、行政による緊急介入が必要な状態にある。
 - Level2 家庭内暴力や家族間の対立等の問題が存在し、家族機能が著しく低下した状態にある。
 - Level3 家族間の不和等の家族問題が存在し、家族機能が低下した状態にある。
 - Level4 家族問題が存在するものの、家族機能が一定程度保たれている。
 - Level5 一般的な家庭環境で、家族機能が健全に保たれた状態にある。

②本事業における行動改善項目(旧式)

改善(旧行動改善項目)	
1. 登校開始など学校復帰の兆候が見られる	38%
2. 適応指導教室などに通うことができる	8%
3. 各種専門機関に繋がった	14%
4. 生活や学習の習慣が改善された	44%
5. 教員や友人などとの関係性の修復傾向がある	26%

③県指定様式：不登校の状態(13段階)

不登校の状態段階

1	登校せず自宅に閉じこもる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登校せず自宅のみで生活する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登校せず自宅のみで生活するが、時に自宅外に出かけることがある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登校せず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等の学外施設に行くことができる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登校せず適応指導教室に行くことができる	5	5	5	5	5	5	5	5	5	5	5	5	5	5
6	年に数回登校する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月に1回程度登校する	7	7	7	7	7	7	7	7	7	7	7	7	7	7
8	月に数回登校する	8	8	8	8	8	8	8	8	8	8	8	8	8	8
9	週に1回程度登校する	9	9	9	9	9	9	9	9	9	9	9	9	9	9
10	週に2回～3回程度登校する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週に4回程度登校する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月に数回欠席するが、その他は登校する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ほぼ毎日登校する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支援開始後の状態段階 (単位:人)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1				1					
2		5	12	4	2	5	3	1	1			1	1
3			5	3	1	1	1	3	1	1	1		1
4					2								
5							1	1				1	
6								2					
7							1						
8			1					2	1	1		2	
9										1	1		1
10										1	3	1	2
11													
12													
13													2

個人的資質や感覚、経験則に基づく支援ではなくエビデンスに基づいた根拠ある支援の展開が重要！複数分野の専門家によるチーム対応を実現するには「共通言語」として簡易的アセスメント指標は必須！事業評価にも委託側、受託側双方の指標を用いて多角的に検証することで適切にPDCAサイクルを回す！

全国的に悪化や高止まりが続く中、佐賀県では「若年無業者」が着実に減少！(H19年4,900名⇒H29年3,100名、改善率は全国トップクラス！)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 보장에 관한 한·일 비교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多様な学びの場」における
進路保障に関する日韓比較

